

第300回國會
(臨時會·閉會中)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5月26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사청문회 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국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공직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인물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방송과 공중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는 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공직후보자 이채필

○위원장 김성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점들은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낙후된 지역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염병 예방주사 한 번 맞지 못하고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두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게 걱정을 끼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특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성실한 자세로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믿음은 이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숱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기본권 보호, 고용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선진화까지 진일보해 왔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고용노동부가 그 땀의 가치를 소중히 받은 결과입니다. 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정책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답을 쉽사리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예전처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빈 일자리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은 되물림 되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보다 복지의 그늘에 안주하게 하는 제도적 모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일하고 싶은 청년, 다시 또 일하고 싶은 여성,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자들이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겪는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사회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성장과 복지도 결국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일을 통해 더 잘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뜻과 힘을 모아 내 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일자리 현장 지원단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고용노동정책과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국민, 현장, 일자리의 관점에서 섬세하게 다듬어서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 선진 서비스산업 등 관철은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창직, 사회적기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일과 학업, 가정, 노후, 건강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잠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더 나은 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을 촘촘하고도 세심하게 다지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공공과 민간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이 경제·산업·재정·교육·복지 정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범정부적 팀워크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지역·업종과의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일자리 문제의 대안을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일자리 협업의 틀도 단단히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로의 발전입니다.

노사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근로시간 줄이기,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일터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의 양과 질이 늘어나고 개선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동료나 이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사의 상호 사회적 책임 확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복수노조 제도는 법치와 자치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올 7월부터 적용되는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강자생존이 아닌 적자생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사정 각 주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해 나간다면 상생의 방향으로 노동권도 진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고용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나눔과 더함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민을 나누면 지혜가 생깁니다. 노사가 마음을 나누면 일자리와 생산성이 더해집니다. 우리 사회에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나눔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직자, 근로자, 기업이 일로써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일을 통해 따뜻한 공정사회가 되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키울 것은 키우며 버릴 것은 버리겠습니다.

저는 청문회 자리에 서면서 과분한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행동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 없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틀 전 충청남도 아산 유성기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유성기업의 문제 처리가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관 내정자의 중요한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이틀 남겨 놓고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선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안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공권력 투입을 진두지휘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아울러서 이채필 장관후보자에게서도 이런 노사갈등의 최우선 조정자가 노동부라는 데 있다라면 공권력 투입을 바라만 보고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노사 간의 문제에 공권력이 번번이 투입되는 것을 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과연 이후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노사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번 이채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1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지금 노동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 1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정리해고되고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한진중공업 문제,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47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삼성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명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 자리에 부를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위원님!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그저께 유영숙 장관후보 내정자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관련된 두 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늘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신영수 간사님께서서는 상임위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인데 왜 인사청문회에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2월 국회부터 시작해서 4월 임시국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지금까지 못 불렀습니다. 반대만 하십니다.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회가 파행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르면 되는 것을 왜 이 자리에서 부르느냐,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그런 현안 문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입장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번 정기국회 때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2월·4월 국회에서 소위 노동 4대 현안이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바고, 불행하게도 2월·4월 국회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 처리를 1건도 못 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관련되는 그러한 법안 처리를 4대 현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아주 진지하게 해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짧은 시간에 5회에 걸친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후보자가 장애를 극복하면서 30여 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중요직을 거쳐 내부에서 처음으로 장관후보자에 지명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산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은 전세권 2억 5000만 원, 분양권 3억 477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966만 8000원이고, 중도금 납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부채·이자 1억 3910만 원인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다음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2003년 7월 당시 총무과장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의

인사 운영과 인사 혁신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당시 직급이 무엇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 6급 신분이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별정직 김모 씨가 그 당시에 승진 대상이었던지, 아니었던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자리는 일반직 5급 자리이기 때문에 별정직 6급의 신분으로는 일반직 5급이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강성천 위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김모 씨는 빈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발령을 계속 안 내고 주변에서는 ‘형님이 승진하는 건데’라고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썼다고 하는데 김모 씨가 승진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천적으로 별정직 6급이 일반직 5급이 될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만약에 별정직 자리로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2003년도에는—참여정부 첫해입니다—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서 내정된 분들이 그해 가을까지 단 1명도 발령을 못 받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김 씨 부인이 화장품과 한지상자를 이 후보자의 아파트에서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말하기를 총무과 민원실의 직원이라고 와서 과장이 보실 자료라고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 볼 자료였기 때문에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원래 안 되는 일을 부탁한 직원이 생각나서 또 물건도 좀 이상하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돌려주면서 야단을 좀 쳤습니다.

○강성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봉투를 전달하면서 과장님 보실 서류라고 하면 뜯어

볼 텐데 행정봉투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저희 집사람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 건네줄 때 행정봉투, 밀봉된……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봉투를 받으므로 접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놓았습니다. 그대로 두었고요.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만져 보니까 자료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다음 날 돌려준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김 씨는 석 달 뒤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봉투를 돌려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그다음 날 바로 돌려줬습니다.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강성천 위원** 그리고 김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후보자에게 항의를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소문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 운영을 혁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도 그 분야 업무 선수가 아니면 말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후보자가 돈을 돌려준 장소를 처음에는 총무과장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원실이라고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은 무려 8년 정도 지난 일을 어느 순간 갑자기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미처 생각을 되새기기도 전에 묻기를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줬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줬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봤더니 민원실로 제가 가서 전해 주고 호통도 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직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2003년 당시 민원실 근무자 중에 여직원을 제외한 허모 씨, 홍모 씨는 봉투를 돌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후보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려줬다고 조급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봉투를 돌려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민원실에 가서 그분에게 ‘어제 우리집에 다녀갔지요?’라고 하고 ‘이것 뭘니까?’ 했더니 주저하면서 ‘뭉, 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 청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고 돌려주면서 나왔고요.

그때 민원실에 직원도—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있었고 민원 상담을 하러 온 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직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두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민원실의 업무 특성상 그 방에서 전화 응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정부합동안내소에 가서 이런저런 중재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 다 그 자리에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자 언론에 인사 청탁, 금품수수 의혹이 바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인사 운영 혁신에 대해 원한을 산 사례가 아닌가 싶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참여정부 첫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사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기반 아래 제가 총무과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원칙, 그리고 실적과 능력에 의한 인사, 그리고 인사 기준에 의한 투명한 인사, 그리고 균형 인사 이런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2003년 7월 달에 만들어서 장관부터 실·국장, 모든 간부가 같이 서명을 하면서…… 이 얘기는 장관이 비록 바뀌더라도 우리 조직은 이 뜻을 영원히 계속 계승한다라는 다짐 속에서 나온 혁신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폐습을 없애고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불만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고 좀 야단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만 장관이 차관 당시 그리고 실·국장 당시에 ‘노동부의 꼬장’, 또는 좋게 표현해 가지고는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평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음날 돌려주었다 해도 부인이 모르고 받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 처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과장이 볼 자료라고 하니깐 건네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받았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돌려주면서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과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부처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처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첫……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좀더,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순위는 국민의 요구가 우선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직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조건을 딛고, 특히 장애를 딛고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쌍용자동차에서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을 걱정하다가 자살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돌아가신 분이 열네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지금 몇 달째 구조조정에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반도체에서 직업병인 백혈병으로 죽었다 이런 분들이 마흔일곱 분이나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참담한 노동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인사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무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지금 참담한 노동현실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고 또 그 주무 책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것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매년 60만 개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40만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청년실업을 3%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이 어떻게 지금 노동현실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제가 추궁할

것이고, 또 일자리정책을 비롯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성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이어서 저도 2003년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돌려준 시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후보자는 다음날 돌려줬다, 그리고 주었다는 당사자 김 씨는 석 달 후에 돌려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진술에 대해서 전달자는 김 씨와 김 씨 부인이 함께 장관후보자의 집에 가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관후보자는 김 씨한테 부인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자기와, 김 씨와 김 씨 부인이 같이 가서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채필 후보자께서는 김 씨가 와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홍영표 위원** 아니, 이 사실만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천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자료를 건네줬는데 그 금액도 여러 금액으로 달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셨을 것 아닙니까?

김 씨, 지금 전달했다는 그 사람은 본인과 부인이 함께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사실은 제 집사람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오기를……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총무과 민원실 남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장소는 같습니다. 이채필 후보자의 집을 방문해서 주었다, 그리고 방법은 화장품과 함께 한지 상자에 담아서 주었다, 그런데 이채필 후보자는 ‘반으로 접힌 행정봉투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후보자가 주장하신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반으로 접힌 행정봉투로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영표 위원** 그다음에 반환일은 서너 달 뒤고 다음날 바로, 그렇습니다. ‘반환장소는 총무과장실이였다’, 그리고 ‘1층 민원실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진술을 보면 ‘반환장소가 총무과장방에서 돌려줬고 다른 사람이라도 입회시킬 걸 그랬다’ 이렇게 기사가 취재했을 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기자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줬다면서요?’ 했을 때 ‘돌려줬다면서요?’에 저는 방점을 두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사가 ‘그러면 돌려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지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그것은 참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돌려주는 게 맞겠네요’라고 했는데 다시 곰곰이 8년 전의 기억을 해 보았더니 다음날 가서 돌려주고 호통을 친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우선 장소가 다릅니다. 총무과장방에서 돌려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민원실에서 돌려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봉투라면 돈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애당초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것은 ‘아내가 과장님 보실 자료라며 행정봉투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뭐 기억이 오래 돼서 그것을 혼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그마한 행정봉투라고 했는데 김 씨와 김 씨 부인이 함께 방문해서 화장품과 함께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정봉투하고 화장품 상자하고는 큰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집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화장품이나 한지상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정봉투에다가 자료라고 해서 테이프를 발라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본인이, 지금 김 씨라는 분이 너무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이 그렇게 완전히 조작해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와……

○**홍영표 위원** 일단 갖다 드린 행정봉투가 뒤편 화장품상자가 뒤편 부인께서 그것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자료라는 것으로 해서 행정봉투를 받은 것이지 돈인 줄 알고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발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기자가 ‘돈 받았나요?’ 했는데 집사람은 ‘돈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또 하나는 이 행정봉투에 대해서 뜯어보지 않는다, ‘우리 집사람은 우편물은 절대 뜯어보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러면 부인은 안 뜯어봤고 후보자도 뜯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도 그냥 개봉하지 않은 채로 그다음 날 돌려주면서 ‘이게 뭘입니까?’라고 김모 씨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별정직 6급이었기 때문에 일반직 5급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합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불가능합니다.

○**홍영표 위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참여정부 초기에는 공모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전문계약직 같은 걸로 5급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분은 민원실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그런 TO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우선 여기 민원실장이 공모직으로 해서 민간인이나 별정직 6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능하지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전문계약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통계라든지 국제라든지 그런 분야는 가능해도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거 정리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어디까지나 인사혁신을 제대로 한 것이고, 너무나 리얼하게 상황을 묘사한 것 자체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시고요.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당연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진 위원** 자, 그러면 노동조합에는 단위노조만 있으면 좋지 뭐 상급노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노조도 필요하고 상급노조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정치적인 노동운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좋지 않지요. 그러나 이 노동운동 자체를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 좀 해 봅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13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또 하나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 임금을 여태까지는 회사에서 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대신 노동조합 활동 중에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은 일정하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종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이 개정 노조법을 죽 만들 때 우리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셨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정국장 시절도 있었고 기획실장 시절도 있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은 이 노조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실무적인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1일 02시에 본회의 결정되기 바로 이틀 전에, 2009년 12월 29일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그리고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제가, 셋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손을 본 것, 그때 같이 계셨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있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때 크게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어요, 그렇지요? 복

수노조의 시기도 그랬고,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때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첫 번째, ‘교섭이나 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이런 것을 노조가 했을 때는 당연히 근로시간면제에 포함한다’ 이것은 이견이 없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때 정부 쪽에서는 뭐냐면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모두 다 포함시키면 이것은 사실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의미가 없어진다, 노조 활동 전부 다에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때 한나라당 안도 그랬고 추미애 위원장 안도 그랬고 ‘통상적인 노조 모두를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포함시키자’였는데 정부의 그런 이견 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중재안을 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그것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중재를 내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 때,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상급노조에 파견하는 활동이것은 전부 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부 매뉴얼에 나오잖아요, 매뉴얼 15쪽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상급단체 파견업무는,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본적으로 타 임오피는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을 스스로의 부담으로 한다, 자주성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이런 부분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 비용에 대한 예외적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진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이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그때 분명히 우리 후보자도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건전한 노사관계란 뭐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이것은 ‘단위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상급노조 활동 중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업무는 타임오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준 겁니다. 해 줬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금 월권을 했어요. 지금도 이게……

우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 단위노조 부분에만 타임오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보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차명진 위원 지금 후보자가 자신이 권위를 갖고 무게를 잡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다 들으셨어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볼 때도 단위노조가 아닌 상급단체에 대해서까지 경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도, 예컨대 단위사업장 노조활동을 하면서 상급단체 활동을 동일인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상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상급단체 활동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 정신의 단위사업장 위주의 타임오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차명진 위원 자,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처음부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후보자님, 그것 아시지요? 대한민국에서 노사관계가 죽 있으면서 예컨대 기업주가 노조에 임금을 지급한 관계라든가 또 단일노조가 죽 지속돼 왔던 것들은 다 한국적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반영한 거예요.

이 반영이 우리가 노조활동이 성숙되면서 국제적 기준들을 좀 더 적용하자 이러면서 13년 만에 노조법이 바뀌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스탠더드 그것 후보자 마음대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역사를 고려하면서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또 틀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이 법을 정한 국회의원이 법의 정신을 얘기하지, 왜 실무자인 노동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합니까? 이게 시행령이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시행령이 틀렸다는 걸 아직도 그것을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명진 위원 저는요…… 이 말씀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지금 상급노조 자체 활동을 부정하는 후보자의 그 인식은 바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왜 국회의원들이 정한 정신, 내가 그래서 조금 아까 12월 29일 날 합의 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노동부장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란 뭐라고 이렇게 합의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도 그거를 왜 장관 후보자가,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장관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의 정신이라는 이름하에 왜곡 해석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노동운동의 건전성, 순수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고 하고, 제가 고용노동부를 희망해서 원해서 가서 일해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령의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어서 진행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셨지만 법 정신이 원래 그랬고요. 시행령에는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정리된 자료에도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이런 사항이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법 해석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활동 이 부분은 상급단체에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차명진 위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에게 이런 말씀드리어서 미안한데, 벽창호 같아요. 법을 만든 의원이 법의 정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얘기하면, 노조활동을 인정하려면 상급노조도 인정해야 되고 상급노조 인정한다면 상급노조의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되는데 왜 지금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마이크 잡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거꾸로 또 해석을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그동안 노동부에 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뭐가 쿵쾅거리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쿵쾅거리는데,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미경 위원 한나라당 보좌관 체육대회 하는데……

○위원장 김성순 그래도 해야지요, 어떡해?

홍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마이크도 볼륨 좀 올려 주십시오.

우선 장관 내정자로 추천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고용노동부는 2010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몇 등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평가 말씀이신가요?

○홍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짧게 좀 대답을……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좋지 않았습습니다.

○홍희덕 위원 38개 기관 중에 36위 했습니다.

2010년 청렴도 측정 결과 고용노동부의 법령규정 절차를 무시한 상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많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죠. 부

당한 업무 지시 평가 점수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평균의 6.67점에 비해서 고용노동부는 단 2점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 어떤 것들입니까? 부당한 업무 지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제가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아, 그래요?

감사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적당히 마사지하라고 주문하고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측과 접촉하고 그런 것들입니까?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의 청렴도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업무가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특별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근무하게 되니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홍희덕 위원 후보자님, 그렇게 답변 구구하게 다 들으면 답변 받는 데 10분 걸리겠습니다. 좀 간략 간략하게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3000명가량……

○홍희덕 위원 직원이, 일손이 모자란다 아십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원이 30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7급 9급으로 신규로 2006·7·8에 들어온 분이 1600명가량 됩니다. 신규직원들의 적응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누적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누적됐다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고용노동부의 직원들은 금품·향응 수수의 부분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2010년도에만 산업재해 분야에서 2건, 인사 분야에서 3건의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고용노동부 직원들 스스로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점수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직원들이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조차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패방지가 될 리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비리, 금품·향응 수수,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 한 두 명의 비리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인사를 관장하는 책임자 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행정 봉투, 돈봉투, 인사청탁, 괜히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국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신고사건 처리가 불친절하고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조사가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고용부 자체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일입니다. 일례로 노동부가 산재승인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잦은 민원과 노동 사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임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에서만 29년을 일했다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를 했던 의혹을 이제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또한 멸절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마구 내리고, 해지시키고, 노사관계에 관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해 오는 등 부당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 청렴도평가에 36위를 벗어나기는커녕 38개의 기관 중에 38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내년에도 또 청렴도는 꼴찌 수준에 머무르겠습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을 옥보이는 겁니다.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이렇듯 청렴하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뭐 했느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청렴도 36위에서 10위 안으로 들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를 되새기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고용노동부의 업무의 특성상 규제도 많이 있고, 특히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체불 업무라든지 이런 감독의 어려운 일들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개선해서 과업 중심으로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킬 것은 지키지만 고칠 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를 개선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관이 된 후에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 어떻게 한번 약속하시겠습니까? 10위 안에 꼭 들도록 노력하시고 못 들면 그때 장관직 사퇴하실 용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후보자, 충남 아산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리고 이틀 전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공권력이 지난 화요일 오후 4시를 기해서, 그날 우리 환노위가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도 노사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후에 사용자는 나와서 입 딱 닫고 시계만 보고 있다가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 뭐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이번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의 핵심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유성기업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홍희덕 위원** 안타까움을 떠나서 이것은 노동부의 임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인데 이번 일은 주간연속 2교대제하고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 노사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조의 시설 점거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장, 협력업체 근로자, 그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감안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홍희덕 위원 그 소리 하도 따갑게 들어서, 언론에 들어서 우리 후보자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불법파업이라니요. 여기 죽 해서 교섭한 것 나오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이미 유성기업은 노사 간에 2011년 1월 1일부터 주간 2교대제 하기로 하고 월급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올 초부터 이렇게 열두 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측이 뭘 갖고 나왔습니까?

이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무슨 노조가 그렇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지극히 합법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두 번에 대해서도 안 되니까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 조정 중지가 되고, 합법적인 파업하는데 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용역을 들어서 이 조합원들 출입을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18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여기서 내가 뭐 깡패라는 그런 표현은 참 써서는 안 되는데…… 대포차를 갖고 평화롭게 집회 끝나고 가는 조합원들 향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13명 중상 입은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받았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 범법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노동부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문회 앞두고 뭐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기업의 노사 간 쟁점 사항은 주간연속 2교

대제와 월급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정당성으로 인정받는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주체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입니다.

유성기업의 경우에 주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 시설 점거라는 행위, 즉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쟁의행위인데 노무 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장 점거를 한 이 부분들은……

○홍희덕 위원 차관님, 점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가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법과 원칙에……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세요.

○홍희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 지역 출신 손범규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후보자 본인이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는 역경을 딛고 장관 후보자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장애의 유형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15개 유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눈 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또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의 장애 유형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 각 유형별로, 장애 유형별로 과연 얼마만큼 숫자가 분포하고 있는지 그 숫자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유형이 지체장애입니다. 50%가 좀 넘고요, 등록된 인원이 130만 명가량 되고요.

○**손범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다음 많은 것이 청각장애입니다. 한 26만 명 정도 되고, 10% 정도 되고요.

그 비슷한 수준이 시각장애 9.9%로 25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대략 맞추었는데 지체장애인보다 지체장애인 바로 밑으로 분포된 게 뇌병변장애입니다. 그런데 뇌병변장애는 그 뇌병변에 따른 현상이 지체장애자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오류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보면 대한민국 총인구 5051만 5000명인데 그중에 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과 같이 분포, 가족을 3인 내지 4인 또는 5인의 가족을 보면 최소한 전 국민의 20% 이상이 장애인으로서 직접 고용 관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가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 장애인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저 지원하는,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이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 최전선에 서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 자체를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WHO에서는 인구의 10% 정도까지 장애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5%가량으로 250만이 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처음에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하는 복

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일을 통한 자긍심과 복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 유형별 그리고 개인 특성별 능력에 맞는 대책들이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과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 과를 최소한 국으로는 승격할 수 있어야 장관 후보자의 지금 말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장애인고용과를 국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 정도 포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업무 역량을, 비록 조직은 과이지만 장관이 직접 챙기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다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어떠한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무거운 것을 옮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개개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손범규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서 회계·사무 지원이나 공무원 등 사무직이나 IT 등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에서 충분히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많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거나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 같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인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오를 수 있는 지금 위치까지 온 것처럼 얼마든지 이런 분야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각장애인 어떠세요, 시각장애인?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손범규 위원**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말씀하신 대로 뇌병변 원인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운동신경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체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수

단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눈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경우는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헬스키퍼(healthkeeper)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손범규 위원 그게 바로 컴퓨터속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고객 상담, 공연 전시, 콜센터 안내원, 도서관 사서 등이 가능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청각장애인은 어떻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청각장애인은 소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음사업장에는 오히려 다른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장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전자, 반도체 등 전문기술 분야 사업장이라든지 제과제빵 사업장 이런 데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손범규 위원 지적장애인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단순 업무, 조립, 반복, 이런 부분들은 또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차량 세차라든지 간병 보조라든지 외식 보조라든지 조립 등에 종사할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손범규 위원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용을 촉진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또 지금 비록 숫자가 적지만 장애인들이 각 직역에 지금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유형에 맞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 고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작업 환경을 장애에 따른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끔 시설 개선·보수를 용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행동이 좀 부자유하기 때문에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특히나 작업 보조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공학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보태면 능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다고……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핸드 레일, 경사로 설치해 주고 화장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고.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자블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손범규 위원 시설 개선 또 점자 정보 단말기, 확대독서기 등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업무지시 전광판, 안내등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국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특히 청각장애인, 농아자들에 대해서 수화통역사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민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또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작업 지도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손범규 위원 이러한 모든 장애인 고용과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 지원에 있어서 본인이 장애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후보자께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포부와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를 보기보다 장애 이외의 나머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소위 말하는 봉투사건, 그런데 컷다는 분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본인이 불응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서는 본인이 불응해서 안 나온 것이 옛 상관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안 나오는 건지, 후보자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이번 청문회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 제기한 분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지금 노동행정을 얼마나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82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되어 간다……

○**金容九 委員** 30년 가까이 노동행정을…… 그러면 노동행정의 달인이시겠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거기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열심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노동 고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해관계 있거든요. 사용자와 고용당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만 너무 치우쳐서 노동행정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균형을 잡는 역할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대단히 중요하고, 노동운동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힘이 기울어질 때에는 그 부분들이 중도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당사자가 노동계든 경영계든 어느 쪽이든 막론하고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언짢을 수 있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해 왔다, 균형감 있게 일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金容九 委員** 지금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에서 노동정책은 나눔과 더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맥박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합심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일자리가 중요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력상황은 이게 인력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력도 많이 있는 가운데 부족한 면도 동시에 많이 있습니다. 즉 미스매치 부분이 여러 형태로, 정보의 측면에서도 미스매치가 있고 기능수준에 있어서도 미스매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미스매치가 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렇다면 미스매치가 문제점이라는 걸 분석을 하셨으면 노동정책이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정책을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金容九 委員**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면이 있기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통계청 4월 고용 동향에 보면 말이지요. 37만 900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그런데 20대의 취업자는 10만 1000명이 줄고 30대 취업자도 1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에 그리 된 거다. 일자리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꼭 나이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연령상의 특성으로서 청년의 경우에 경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인력 수급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나 하면 청년층들이 가고자 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많지 않은 가운데 또 한편으로 빈 일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 기술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서로 미스매치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벨기에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제타 플랜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좀 원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리나라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의 3%를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정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로제타 플랜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경우에, 즉 의무화시킬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장벽이기 때문에, 즉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더라

고 생각해서 규제나 어떤 경직성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더하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신중한 측면도……

○金容九 委員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에 맞지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좀 거리가 있다……

○金容九 委員 하나의 규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찬성은 안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실질적으로 청년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金容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국내에서는 그러는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들어오면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게 임금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정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도 그렇고 다른 법들도……

○金容九 委員 그 이상 주라고 그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국적을 이유로 또는 남녀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중동국가들, 두바이 같은 데는 부자가 아닙니까? 거기도 외국인 고용을, 거의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지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자 나라에서도 월 한 400불 선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0불이 넘고 우리나라 노동자가 이 사람들보다 적은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것을 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규제가 아닙니까? 이것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맡기라 이겁니다. 사용자한테 맡기면 사용자가 알아서 400불을 주고 쓰든

500불을 주고 쓰든 1000불을 주고 쓰든 그러면 되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고용 근로자를 쓰고 있는 데는 부담감이 굉장히 갑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애당초 이 문제를 고용허가제로 돌릴 적에 최저 기준만 정하고 숙식비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외국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꼴이 되었던 말이에요. 일자리도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뺏길 바에는, 제공을 할 바에는 그대로 두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임금이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이 문제를 좀 앞으로 노동 행정을 맡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ILO의 최저임금에 관한 협약 문제도 있고 일종의 사회적인 최저 수준의 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김모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평소에도 인사 청탁을 했었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게 해 달라. 승진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총무과장이 되고 나서 저에게도 몇 차례 일반직 5급 자리를 가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제가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즉 직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말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뒤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 전임 과장들에게도 알아봤더니 여러 차례

그런 현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귀찮게 어렵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렇게 설명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별정직 6급의 경우에는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런데 5급이 되면 정년이 60세로 늘어납니다. 2003년도 연말이면 김모 씨의 정년이 임박하게 되고 아마 급한 나머지 상당히 심리적으로 쫓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안 되는 일을 자꾸 부탁을 할 때는 그 안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리이러 하면 될 텐데, 봐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리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무데뽀로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을 가진 것 자체는 본인 생활, 장래에 대한 어려움, 급한 나머지 때를 써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승진을 못 해서 결국 57세 정년으로 퇴직을 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보도에는 후보자께서 처음에는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주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민원실에서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보면 후보자 본인께서 '내가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주었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자님의 질문이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주었다라면서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했고 또 동시에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돌려주었다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그러네요. 누가 보는 데서 돌려주는 게 맞았네요" 이런 얘기를 했고, 8년 전 일을 갑자기 물으니깐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되새겨 봤더니 제가 직접 가서 돌려주면서 훈계도 한, 제가 인사 혁신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인사 청탁을 못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을 하면 그것을 공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였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까 민원실에서 그분한테 호통을 치면서 돌려준 것을 본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확인되었습니까? 본 분들이 ‘제가 그때 본 것이 기억납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민원실에 있었던 직원들에게서 저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주장들이 나중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오늘은 여기에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안 돼서 못 나왔지만 바깥에서 사적으로라도 그분한테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확인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상태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쪽 관련 상황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는 관계된 분들의 진술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필요하다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집사람의 경우에도 평생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에게 사실을 한번 적어 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자술서를 받은 것도 있고요. 정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섭섭해서 그렇다고, 아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 인사를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공여죄가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조해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범죄이고 형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시효가 지난 것 같아요, ‘시효가 5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년 이전에 만약에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 고발 필요 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중형을 받게 되는 그런 죄를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되는데 지금 시효가 지나서 아마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다음 날 바로 돌

려줬는데, ‘그게 아니다. 한 서너 달 갖고 있다가 내가 돌려 달라고 막 쪼니까 마지못해 돌려줬다’ 그런 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이 김모 씨라는 분이 명예훼손죄라는 또, 뇌물공여죄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인데 본인이 이걸 의식하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고발하시거나 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제가 그래서 그 보도를 접하고 우선 보도한 기자 분하고 통과를 했더니 ‘익명으로 제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해 냈고요. 그 뒤에 또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그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게 생각이 듭니다.

○**조해진 위원** 사실이라면 여기 나와서 선서하고 공개적으로 입증하면, 증언하면 그 시비를 가려 줄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방법이 될 텐데……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서 선서하고 그 말을 다시 반복했다가 나중에 위증죄가 되면 이것도 또 굉장히 큰 범죄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나 싶기도 한데…… 또 본인이 진짜로 서너 달 뒤에 받아 가지고 통장에 넣었다고 하면 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그때 받고 바로 넣었다고 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 날 받고 한 서너 달 있다가 넣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못 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될 텐데 그것은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한 만큼 입증해서 공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계좌를 보여 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 건 말고도 평소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금품 청탁 제안이나 이런 걸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예전의 이런 폐습들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과거의 관례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을 하기 그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업무구조 특성이 중앙단위 행정도 있지만 일선에 근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민원도 있습니다. 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떤 의미로서는 좀 편하게 일한다든지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때 장·차관님께서 인사로서 일이 뒷받침되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탁이 돼서 그 실무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때 총무과장 맡으시던 2003년에 같은 동기들이 후보자님하고 같이 부이사관 승진을 하신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와 부이사관을 같이 달은 동기들은 이미 그때 국장 직위 승진을 해 있었습니다. 저도 국장 직위 승진을 그냥 관행대로였다면 했을 시기였습니다마는 인사개혁의 책임자를 찾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강직하고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서 맡기지 않았나, 즉 직위 승진이 늦는 대신 조직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개인적으로는 인사에 있어서 다소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업무도 맡게 되고 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때 인사혁신을 추진했던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그때 이룬 인사운영 혁신지침이 고용노동부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중앙인사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모범 사례로 올려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잘 활용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다가가게끔 하는 역할도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취지를 확실하게 더 잘 살려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이채필 후보자님, 노동부에 워낙 오래 근무하신 분이니까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노사관계나 고용사정이 워낙 어려운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 내지는 쟁점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현장에서의 쟁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쟁의행위 말씀입니까?

○**원희룡 위원** 쟁의를 포함한 분규 상황 전체를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노사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분규를 가지고 보더라도 2008, 2009, 2010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상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나름대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로손실일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용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 이런 부분들도 2010년도에 30.2일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 3년간 34.7일보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피용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IMD의 노사관계 경쟁력 평가도 최근 꼴찌 수준에서 맴돌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졌다, 그것도 3년간 평균하다 보니까 생각만큼은 더 나은 걸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희룡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장에서 노사간에 노사 협력 선언 부분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희룡 위원 예정대로라면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원희룡 위원 복수노조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복수노조제도는 ILO에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열한 번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OECD에서도 2007년까지는 복수노조가 되지 않아서 모니터링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차원에서 완결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해서 13년간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노사관계 선진화 가운데 노조전임자 문제하고 복수노조입니다.

○원희룡 위원 양대 노총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 부분이 연착륙되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한국노총의 경우에도 전임 집행부는 대응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하고 이것이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현재 양대 노총을 얘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동안 관행에 익숙한 상태로 가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한 노사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에서는 사실상 복수노조 실시를 반대하고 있고 또 원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얘기될 때 3년 유예안, 2년 6개월 유예안 등등 있다가 가장 짧은 1년 6개월 유예안으로 도입되면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유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노사관계의 양대 기둥이 전임자 문제하고 복수노조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전임자 문제를 먼저 타임오프 형태로 시행을 하고

1년 뒤,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연착륙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은 유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잘 시행하기 위한 시기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보고, 지금은 곧바로 7월 1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 없이 착실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더 절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서 노조 조직률도 일부, 특히 연구개발직이라든지 사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률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입지 확보를 위한 선명성 경쟁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결국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착을 얘기하십니까라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동안 우리나라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복수노조제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초기에 다소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타임오프 문제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임오프도 현재 대상의 87%가 도입이 됐고 도입된 사업장의 98.9%가 고시 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량에 비추어 본다면 이 복수노조 문제도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시간 제약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점만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노동부 고시에서 전국단위 사업장을 의미하는 전국 분산,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정하는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물론 전임 장관 때입니다마는 당정고위정책협의회에서 10월부터 대화를 하기로 해 놓고는 결국 현재까지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당시 차관일 때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은 어느 한쪽의 희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와 관련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인 만큼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부칙 특례를 두었습니다. 즉 그것은 '전국적인 분포라든지 교대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상황을 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다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 것이었고, 해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고시를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시행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원희룡 위원 언제 협의를 하겠습니까? 언제면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재까지는 타임오프 한도 자체 도입이 아직 덜된 상황이고 도입되고 그다음에 시행 상황을 봐서, 즉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위원 정권 다 끝나겠네요.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불법과건으로 고발을 했었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제정작업을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원희룡 위원 5월 달에 발표를 뭐 한다, 이러다가 지금 비공개, 이런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필요하고 또 사내하도급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한 운영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원래는 금년 3월경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공익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노사 간에 의견차가 좀 있고 공익위원 간에도 미세한 의견차가 있어서 그동안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달 중으로 노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공익안 자체가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이 부분이 참고되고 권장되게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상식적으로 왼쪽 바퀴를 끼우는 근로자와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근로자가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시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부담이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방법론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방법론을 고민해야지 이런 상식에 반하는,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가 감싸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원희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국 지금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를 비롯해서 세계화의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춘 부분들은 아마 단군 이래 최고의 가동률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산업, 국내 서비스업, 다음 세계의 글로벌 경쟁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근로 빈곤층 또는 제대로 취직도 한번 못 해 본 그러한 청년층들이 지금 날이 갈수록 쌓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화점 식으로 종합적인 그런 대책 말고요. 우리 장관이 되시면 이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이 될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굉장히 복잡한 것을 쉽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각 부처의 업무를 수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횡적으로 엮어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

○원희룡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30년 동안 근무한 이 노동정책 전문가로서 한 가지 정도는 지금 선을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한 가지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부 내에서도 국과 국 간에 따로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서 정책화되지 않는 그런 틈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고 또 다른 부처와 걸리는 문제들도 해 나갈 텐데 지금 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못 채우는 상황을 보니까 교통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중앙정부로서 국토해양부 그리고 각 지자체,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애로사항을 풀어 간다면 바로 효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원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후보자께서는 전태일을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후보자는 ‘전태일 평전’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전태일 평전’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1970년 22살의 아름다운 청년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르면서 분신으로 항거할 때 외친 그 주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였습니다.

○정동영 위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지금 노동계 또 노동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채필 노동부장관후보자가 반노동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존경하는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께서도 후보자의 노동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자, 노동관·노동철학이 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부 3년 반 동안 극심한 노동핍박, 노동탄압의 중심에 후보자가 서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41년이 되는 오늘날 여성 전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 35m 고공 크레인에 매달린 채 141일째 정리하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 중입니다. 김진숙 씨를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압니다.

○정동영 위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의 고공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자물쇠가 잠겨서 20m 정도 올라가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다섯 달 가까이, 141일째 여성 노동자의 몸으로 초인적인 그런 투지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리하고 된 후배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기 재생)

자, 김진숙 지도위원,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한진중공업 사태가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한진중공업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동영 위원 가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노동부장관으로서 현장 방문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정동영 위원 안 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다, 안 간다’를 밝히는 것이 우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가서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고 노동부장관으로서, 또 장관되기 이전에 그동안 차관도 하고 실장도 하고 국장도 했는데 그동안에 노동행정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고 노동자의 삶과…… 아까 장관후보님께서 인사말에서 ‘노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2003년, 8년 전에 한진중공업의 노조지부장 김주익 씨가 129일 똑같은 이 85호 크레인에 매달려 있다가 129일째 되는 날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노동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김진숙 지도위원이 35m 고공 크

라인에 141일째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동자상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

○**정동영 위원** 노동자는 어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동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만, 한진중공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자가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위해서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 사장의 말에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동의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가족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항거 수단으로 지금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그동안 1000여 명이 잘려 나갔습니다. 정부는 없었어요, 국가는.

그런데 엇그제 충남의 유성기업에 ‘불법 점거다’ 이러면서 아주 전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서 진압했습니다. 이런 태세라면, 이런 기세라면 우리 장관후보자, 한진중공업 점거농성 현장에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태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정동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코 반노동 인사가 아닙니다. 저는 친일자리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역할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마는 지금 경영상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법적인 쟁송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임단협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성기업의 경우

에는 유성기업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완성차 5사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 근로자, 그 가족,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시설점거를 통해서 노동관계 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나머지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왔다 생각을 하고……

○**정동영 위원** 한진중공업에도 물리력을 투입해서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을 잘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자, 지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두 차례에 걸친 특별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조선소와 관련해서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 없다 하는 이런 특별합의가 두 번 깨졌고 그리고 지금 노동부장관으로서 말하자면 준수해야 할, 지켜야 할 또 이행해야 할 법 중에 노동관계조정법, 여기 보면 국가가 당사자 간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노동부의 역할은 한진중공업 사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차관으로서, 실장으로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한 일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고용노동부의 부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장관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장을 여러 차례 갔을 뿐만 아니라 노사를 접촉을 해서 교섭 주선도 하고 필요한 조력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장관이 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냥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겠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정동영 위원**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부산지방노동청의 존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구체적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따름이지 역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사안은 충분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노동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뭘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나름대로 교섭
주선도 하고 필요한 조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
하게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자, 그러면 장관이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습니
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당연히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어떤 것이 해결
에 도움이 되는지를 원점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이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 책임지시고 좀 지켜 주십시오. 그리
고 저희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
람 본 적도 없고 저희는 본 적 없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경위에 의해 방청인 제지, 퇴장)

○**이법관 위원** 국회가 이거 영망이에요, 완전.
이거, 위원장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경호……
국회가 이렇게 영망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
원장님? 이것 참……

○**위원장 김성순** 어떻게 들어왔어?

○**이법관 위원**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앞
아 가지고 불법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까지,
회의장 내까지 들어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방금 전에 한진중공업 사장이라
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인
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용에 대해서 제 견해를
답한 것이고……

○**이법관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나
고요, 한진중공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법관 위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기

업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할복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기업가들이 어디 있어
요? “노동자가 회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할 기업가가 지금 우리 국내 기업가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마도 없으리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법관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꾸고 한 것은 단순한 형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고
용정책이 중요한가를 국가적으로 표현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우리 고용의 현실을 봅시
다.

지금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현실은 취
업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특히 청년실업이나
고령화사회에 따른 조기퇴직 문제 이런 것이 사
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노사문제는 저임금 투쟁의 시대에서 이제
직업병 또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이
런 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취업난에 지
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현실과 청년실업의 문제
점 또 고령화사회가 돼 감에 따라서 반대로 조기
퇴직이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가정 문제
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
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의 지적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가슴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
니까? 내 진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부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만, 통
계상으로만 진전 상황을 보였지 우리 국민이 체
감하는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정말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좀 쓸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하나 지적하는 것이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의 활동이 증가해 가지고 여성의 취업률이 여성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하는 여성들이 가정 문제와 갈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가정의 일꾼이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직업인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보육입니다, 보육.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제기하지만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40여%가 아직도 직장 보육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보육시설을 보유한 데서도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직접 사내에 설치한 기업보다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을 해서 해결하는 곳이 40%가 넘어요. 이것은 여성 취업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여성의 활동이 중요해지는 이런 상태에 비해 가지고 그 지원이 지금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 평균에 비해서 5, 6% 정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고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어서 나라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쉬운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 지금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법관 위원** 좋아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간단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획일화해서 규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실제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하는 노력을 부처가 협의해서 더 해 나가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별로 개선이 안 되어서 지금…… 답변만 만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사 문제는 저임금 투쟁에서 떠나서 이제 산업재해·직업병, 이것이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의 경우 한 66.5%가 지금 은폐되고 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 보도를 접

했습니다.

○**이법관 위원** 특히 가천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라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건강보험 대상으로 치료받은 1238만 8000건 가운데서 100만 1400건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법관 위원** 대답만 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데 그해에 정부가 공식발표한 산재는 7만 9600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12배의 산재가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 연구보고서가……

○**이법관 위원**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연구보고서 나름대로 문제로 지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입니다.

○**이법관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다만 그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참고로 하시고,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특히 건설업계 산재 은폐가 66.5%에 이르는—아까 말씀드린—이것이 정부 정책의 PQ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법관 위원** 예,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입찰참가 문제에서 산재율을 따지니까 그것을 하청업체에 대해서 은폐시키게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 정부가 산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잘못 부작용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산재 예방 쪽에 더 방점을 두어서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점수를 가감하는 제도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PQ제도가 원래는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었습시다만……

○**이법관 위원** 답만 좀 해 주세요, 답만. 내가 당신 설명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점제도의 의미도 있습시다라는 말씀 주신 대로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법관 위원** “예방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법관 위원** 그다음에 직업병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도 제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질병, 뇌심혈관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정신질환·세균성 질환·간질환·암, 이러한 소위 새로운 신종 직업병, 이것 잘 규명하기가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좌우간 산업현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기업을 설득하고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과학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법관 위원** 진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환노위 상임위에서 쟁점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르니까, 증거 잡기가 어렵지요. 과연 그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그 병이 왜 생겼느냐, 이런 원인을 따지기가 지금 현대의 학에서도 어려워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산재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서 입증책임과 거증책임의 문제를 근로자를 완화시켜 주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그런 쪽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알고 있습

니다.

○**이법관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 수행성도 상당한 기준이였습시다라는 업무 기인성 위주로 바뀌면서 상당히 깐깐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을 못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끔 근로자에게만 입증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한 노동 관련 법규, 산재 관련 법규 개정예 제가 앞장설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본 위원이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사장의 발언을 물은 적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법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측 사장 대변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료 위원 얘기의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또 한진중공업 사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사장을 면담했을 때 사장으로부터, 사장 입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한진중공업 문제의 핵심이구나…… 다행히 후보자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들어 보라는 겁니다. 사장도 만나 보시고, 노동조합의 얘기도 들어 보시고.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법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영 위원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듣기에 ‘회사를 위해서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런 취지의 질의응답이 왔다갔다한 것 같아서 후보자한테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런 기업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듣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고, 노사 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가 가졌던 것이지 정동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후보님 의혹과 관련하여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급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사 관련해 가지고 난 게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중학교를 울산제일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중고교 검정고시라는 본인의 경력을 주장해 온 것이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독학으로 마쳤다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수한 상황이 되고요. 아마 언론에서는 좀 착오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개각 발표 당시에 실수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발표해야 될 것을 ‘중’자가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

대에서는 해명 기사로 중학교는 어디어디를 마쳤다, 울산제일중학교를 마쳤다, 검정고시는 언제 했더라는 것을 추가로 밝혔다고 알려 왔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 문제는 기사가 잘못된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오전에 한진중공업 근로자가 오셔 가지고 좀 소동을 피웠는데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사측에서 고의로 수주를 안 하고 필리핀으로 공사 물량을 빼돌리고 고의로 영도에 있는 조선소를 고사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사 간의 주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실제로 수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분쟁을 가리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업계에서는 조선업이 비교적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주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고의로 물량을 수주를 안 해서 이쪽을 고사시키려는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하면 이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의로 수주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사법적으로 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우리 야당에서도 지금 한진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한진중공업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장관님 되시면 철학이 좀 중요함

니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직책을 다 역임했습니다.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차관, 이렇게 다 하셨는데 타임오프하고 복수노조제도도 사실상 후보자의 생각과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제가 노정국장, 기획실장, 노사정책실장을 맡으면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정신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10년 이상 넘게 끌어온 문제인 만큼 한번 원점에서 제대로 접근을 해서 우리 노사정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디딤돌이 되어야 할 마당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첨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자라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노사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즉 균형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전투적으로 서로 소모전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건전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생산적 관계로 간다면 다른 나라를 능히 더 앞설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본틀은 법치와 자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법과 원칙이라는 바탕 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그에 충실한 방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지금 현재 양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정관계가 지금 경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화와 소통이 좀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동계 중에서 현재 양 노총이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의 경우에 전 집행부가 조직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개정된 노조법입니다. 13년간 엄청난 논

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또 시행을 해 가면서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시점에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 부분을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과 국민경제에 대단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타임오프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타임오프 문제는, 원래가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소 노조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즉,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거기에다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사의 부담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나 중소 규모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하는 대신, 대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노조의 재정을 통해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타임오프도 현실적으로 한국형으로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수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고용이 불안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 정책을 많이 입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금년도 4월에 고용률이 59.3%고 청년실업률은 8.7%입니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는 경기지표가 좋아졌다고 발표를 하는데 특히 청년실업 관련해 가지고는 좋아진 게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괴리감은 무엇이고,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청년 고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퇴하는 인력하고 청년 고용 대상 인력을 봤을 때 2014년까지는 청년층이 대단히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인력 수급상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고 또 정작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청년 고용을 위한 인프라 부분도 미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표상으로는 현재 8.7%의 청년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외국과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짚어질 청년의 고용문제가기 때문에 각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가지고 제가 질문 못 했는데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예컨대 한진중공업 같은 건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어떤 진상조사 같은 건 좀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민주당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후보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는 걸 듣고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5월 10일 날 한겨레신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한겨레 기자하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있지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통화한 적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왜 기자에게 기사가 나가기 전에 전화를 하셨나요? 취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 씨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기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 하필이면 한겨레를 집어 가지고 얘기한 것은, 다른 신문도 있고 할 텐데, 한겨레가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겨레 기자한테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한겨레신문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들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것 이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나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어떤 내용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취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직원들한테 한겨레 기자가 알아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직원은 우리 현직 직원이 아니고요, 퇴직한 직원에게 이런저런 것을 확인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묻기만 했나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어떤 내용 때문에 취재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상대방의 기자님은 구체적인 대답은 안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구체적인 대답은 안 했다?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전화하기 전에 후보자에게도 ‘한겨레가 아마 취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아닙니다.

○**이미경 위원** 보고는 전혀 후보자에겐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경 위원** 전화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전화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시간적으로 보면 그날 오후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취재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미경 위원** 보고를 했다?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이미경 위원** 그리고 운영실장이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한 얘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아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신문 기자하고 차관님하고 통화를 한다라고 한겨레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차관님하고 통화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하겠다’ 하고 얘기 듣고 어쨌든 통화하고 난 다음에 후보자한테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취재를 한다는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통화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차관님과 한겨레신문 기자가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한겨레신문 기자하고 차관님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할 때 전화하면서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방에서 돈을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이라도 입회시킬 걸 그랬다’ 이렇게 후보자를 대신해서 설명을 한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신문에도 났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경 위원** 않다고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이미경 위원**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통화할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겨레신문 기자가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기자하고 전화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것은 모르지만 5월 9일 날 기자하고 전화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신문에도 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 위원** 정확하게…… 틀려서 나중에 또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또 왜 말이 틀리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이라도 입회시킬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운영지원과장이 후보를 대신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5월 9일 날 오후에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통화가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통화가 이루어져서 기자께서 묻기를 “김모 씨가 돈을 주었고 돌려주었다면서요?” 하는데 “총무과장실에서 돌려주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안 돌려주었다라고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만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보는 사람 앞에서 돌려주는 게 맞았겠네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생각해 봤더니 상황이 떠오른 겁니다.

떠오른 것이 제가 퇴근했을 때 집사람이 김모 씨가 집에 다녀가면서 보실 자료라고 행정봉투를 전해 주었고, 우리 집사람은 그 행정봉투가 봉해진 채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저는 그것을 보고 총무과의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다녀갔다

는 얘기를 하는 순간 틀림없이 김모 씨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민원실에서 저한테 검토할 자료를 올릴 이유도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짐작을 해서 그다음 날 갖고 가서 본인에게 “이것이 무업니까?” 이렇게 상황이 좀 됐고, 김모 씨가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청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는 돌아온 겁니다.

○이미경 위원 끄집어내서 돈을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봉한 채로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봉한 채 그대로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기자가 먼저 전화했는지 또는 후보자가 먼저 전화했는지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생각이 안 나는데 통화가 이뤄져서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줬다면서요?’ 하고 질문을 하니깐 ‘예’ 하고 그래서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돌려줬으면 누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그다음 날은 이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한 것을 가지고 가서 호통치면서 민원실로 내려가서 돌려줬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이 그런 기억이 사실로 생각이 됐고, 동시에 그 정황에 대해서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미경 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실장으로부터도 한겨레 기자하고 이러이러한 통화를 했다 하는 이야기, 또 취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방금 나온 운영지원과장 말씀입니까?

○이미경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날 저녁 무렵에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그 뒤에 제가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한 이후에 들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한겨레신문 기자하고 통화한 이후에 와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런 것으

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전혀 이런저런 사전에 어떤 내용이 오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모르는 상황에서 통화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하면 운영지원과장의 얘기는 통화한 이후에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에 보고한 것 같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일치한다 그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내용들이 많이……

오전에 얘기한 것하고 질문할 것들이 좀더 있습니다마는 제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입니다.

먼저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노사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이제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복수노조가 사업장 단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 보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복수노조가 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수노조 때문에 큰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까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고용부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로가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부 사례가 아직도 부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낙후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상생협력, 그리고 건전한 경쟁을 해 나가면서 노조는 노조대로 일반 근로자, 조합원들로부터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후보자세요 노동행정 전문가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ILO 국제회의에서 ‘노조 간부는 노동운동 경력을 쌓기 위해 구속당한다’고 하는 발언 내용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언론에……

○**강성천 위원** 잠깐요.

그리고 2010년 7월 19일 상임위에서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반노동자적 발언으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셨습니다.

이 발언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11월 달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ILO 간에 국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사정책과장으로서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법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 과장으로서 우리 노동운동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토론 과정에서 대단히 아쉽지만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행위나 불법파업을 주도해서 체포·구속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시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한국은 손해배상이라는 경제적 책임보다는 구속이라는 형사처벌이 더 많다는 현실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상임위원회 때의 발언도 보도가 상당히 와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노동3권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장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노동3권이 당연히 보장되지만 그 노동3권의 행사

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도 일부 있고 노조가 부담할 부분도 있고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지 결코 사용자가 노동3권을 부정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조의 행위라 할지라도 비용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반노동이 아닙니다. 친일자리입니다.

노동3권을 국민 모두가 보장해야 되고, 필요한 비용은 응분의 책임지는 자세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 즉 자주성의 원칙과 전임자 급여의 원칙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됐다 하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현재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일부에서는 828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는데, 고용부 통계하고는 260만 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을 따랐을 때 33%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수치는 밖의 외부 노동계에서 다른 기준으로 언급하는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실제적인 것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노사정이 합의한 숫자가 그래도 공통분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서 570만 가까이 33% 정도가 객관적인 수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규직하고의 차별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대로 놔둬도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불합리한 차별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후보자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차별 행위들을 가려내고, 그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필요하지만—한편으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근로감독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차별시정을 위한 신청기간이 현재는 3개월까지로 돼 있는데 6개월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지금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57.2% 수준으로 비정규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성이 남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학력, 근속 연수, 개개인마다 인적 속성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은 87.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지금 심각한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들이 노도 있고 사도 많습니다. 즉, 너무 비용절감 위주로 가서는 적절치 않다, 능력과 기여에 상당하는 수준의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노측의 경우에도 서로 연대하면서, 조금 더 나은 분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연대정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산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OECD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산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꼴등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거의 하위권입니다.

○강성천 위원 예, 꼴등이지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0.7% 이내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뭘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본적으로 산재예방에 대해서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깔려 있지 않을까, 설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장에서의 각종 산재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도 근본적인 접근 없이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치밀하게 내실 있게 뒷받침된 산재예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좀 미약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들도 대충대충 이렇게, 설마 뭐 있겠느냐 이런 안이한 측면도 있고 해서 각종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요.

또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발주 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요즘 재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개선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업종별로 당해 사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방들을 사업주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동시에 그 사업장의 산재예방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참여 속에 ‘아, 이런 문제들 이렇게 고쳐 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안전보건지킴이들도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안심 일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작년에 몇 사람이나 죽은 줄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산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2000명이 넘습니다.

- 강성천 위원 그렇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 강성천 위원 시급하게 시정해야 되겠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영표 위원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미경 위원님께서 금품 수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지금도 계시지요?

-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 홍영표 위원 복잡한 거 아니고 잠깐만 일어서
서 그냥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한겨레 기자한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전화를 하고 그 이후로 전
화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이미경 위원 아니지, 아니고 보고를 나중에
했다……
- 홍영표 위원 그러면 장관님보다 먼저 한겨레
기자한테 전화를 하셨지요?
-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장 권오일 예, 그렇습니
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한겨레 기자는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줬고 다른 사람이라도 입
회시킬 걸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한
겨레 기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기자가 후보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주셨다면
서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오전에…… 후보자
님은 갑작스런 질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
해 보니까 민원실에 내려가서 호통을 치면서 돌
려줬다, 이렇게 지금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과장께서 아마 한겨레 기자한
테 전화한 계기를 보면 김종기 씨라고, 김모 씨
이분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아는 지청장에게 전
화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 알려졌고 그계
계가 돼서 운영지원과장이 전화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줬다, 이 이야기
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후보자한테 그렇게 물어본 겁니
다.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주셨다면서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내려가서
호통을 쳤으면……

호통치면서 돌려줬다,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직원과 상담하러 온 분들이 봤다 이런 식으로 증
언을 하셨는데 아마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돌려
줬다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길까 봐서 그렇게 증언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예, 하십시오.

제가 후보자한테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겨레 기자와의 전화 통화 기록
을 확보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경
과는, 지금 제가 볼 때 운영지원과장이 제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겨레 기자한테는 먼저 그렇게 얘기했
습니다. ‘총무과장 방에서 돌려줬고 다른 사람이
라도 입회시킬 걸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다, 위원님.

○홍영표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제가……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
닙니까? 아침에 말하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한겨레 기
자와 통화하면서……

○홍영표 위원 아침에 말하신 그대로 유지한다
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통화하면서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실에서 돈을 돌려줬
다면서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겨레 기자께서 ‘그러면 아무도 분
사람이 없을 텐데 만약에 안 돌려줬다고 하면 어
떻게 하지요?’라는 질문을 기자께서 저한테 했습
니다.

그래서 제가……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제가 그
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홍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러니까 ‘가서 돌려주고, 보는 사람 앞에서 돌려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증언하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제가 아침에 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영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다른 문제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별정직 6급이 일반직 5급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나한테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거 자체가 없다’ 이렇게 아침에 증언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다가 바로 제가 후에 아니, 개방직이라든지…… 개방직으로 해서 전문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4급 이런 고위직들을 개방직으로 분류해서 타 부처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하는 제도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 6급이……

○**홍영표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별정직 6급이 민원 업무를 하면서 일반직 5급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딱 잡아떼셨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민원실 실장은 안 되는 자리다……

그래요, 저도 민원실장 자리는 개방직으로 분류가 안 돼서 별정직이 아니고, 별정직이든 민간이든 누구도 안 되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별정직 6급은 일반직 5급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그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였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감사원에서 국방부와 조달청이 시험 공고 없이 별정직 경력자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발되어서 문제가 됐고, 또 노동부도 계약직 경력자 1명을 일반직으로 뽑았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니지요.

위원님!

○**홍영표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게 2001년, 제가 이것을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01년 10월 달에 보면 그 당시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률 부풀리기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때 공무원이 맡고 있는 센터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제 말씀은 개방직이라는 제도가 별정직 6급이든 민간인이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처음에 답변 아침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제 얘기는 이 사람은 6급 별정직이었는데 5급으로 가는 게 불가능했다 이 말은 틀렸다 이겁니다. 민원실장 자리 말고 다른 개방형 직위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어서 이분이 민원실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개방직 직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능성 있는 것을 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김모 씨의 경우에는 민원실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

적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민원실 업무의 경우에는 특수전문직 분야가 아닙니다. 통계나 국제 이런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정직 6급인 김모 씨가 일반직 5급인 민원실장 자리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홍영표 위원** 제 말씀은 민원실에 있던 분이 정부에 있는 개방직 어디도 그 경력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경이……

김모 씨가 원하는 자리가 민원실장을 원한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인사를 하다 보면 ‘민원실장 그 자리는 자네가 잘 모르지만……’, 다른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전제가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그 사람은 정년…… 5급으로 승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자리 고집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그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왜 후보자께서는 별정직 6급은 일반직 5급, 개방형 직위 어디도 갈 수 없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번 김모 씨 사건의 경우에……

○**홍영표 위원** 아니, 저는 아주 일반적인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오직 민원실장을 원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일반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호도하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면 김모 씨와 분리해서 한번 질문을 하지요.

별정직 6급 공무원은 개방형 5급 직위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어디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그런 가정법으로……

○**홍영표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가정법으로 전제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 가정법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해 놓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고 나는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개방형 직위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내가 뭘 지적을 했는데요? 아니, 별정직 6급으로 있다가 정부에서 개방형 직위 5급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이것은 김모 씨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구체적 전제가 민원실장을 요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됐습니다. 나중에 또……

○**홍영표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이채필 후보자께서는 아직도 노조법 24조2항에 나와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상급노조, 다시 말하면 산별·지역별, 전국단위 노조의 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글로벌정신, 범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오진의 주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당시에 논의 자체가 그랬습니다.

○**차명진 위원** 아니, 이채필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옆에서 배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얘기를 한 사람은 저예요, 저. 이 얘기 한 사람이. 그 당시 정신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그것이 전투적이거나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은 한 산별·지역별, 전국단위 노조활동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그래도 5년간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 배석했던 것에 불과했던 분이 법정신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바보입니까? 생각이 바뀌는 사람입니까? 어때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제가 단순히 배석 정도가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그때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때 위원님께서 속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그 당시에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다 이 상급노조활동을 소위 말하면 근로시간 면제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과 내부 논의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그때 추미애 위원장이나 한나라당에서는 상급노조활동 근로시간 면제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조항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넓다, 이것은 근로시간 면제의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 해서 그때 제가 절충해서 낸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전투적 노사관계나 정치적 노사관계를 제외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는 포함시키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배석했던 분이…… 물론 실무안이야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후보자께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딱 3인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는 당시 이채필 기획실장은 발언권도 없었어요. 없었던 양반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합니까? 이것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당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기록한 자료 어디에도 그런 부분들이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법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때 가지는 맹점입니다. 시행령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그 법을 만들어낸 국회의원이 이것 이의제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제점인데 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지금 이

상황에 아주 악용됐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편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보자야말로 편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조 간 활동에 대해서 상급노조, 다시 말하면 산별·지역별, 전국단위 노조활동을 자의적으로 제외시키는 이 후보자의 사고방식은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노동운동에 대한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보자의 생각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0년 5월 11일 당시 노총 지도부가 아주 곤욕스럽게 이 노동부의 이런 자의적인 시행령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발효가 돼요. 상급노조활동을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제외시킨 시행령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애석함을 금치 않을 수 없었으나 노총 지도부가 그것을 인정했는데 제가 뭐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합의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한국노총의 지도부를 위해서 경총이나 대한상회가 120억을 마련해서 2년간 한국노총 지도부가 자립할 때까지 노총 지도부의 임금을 대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차명진 위원** 물론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120억 급료를 주기로 한 거다. 무조건 주기로 한 거는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동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경제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 ‘공익사업’이라는 얘기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즉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전임자 급여가 법정신에 맞지 않다

라는 전제기 때문에 공익사업자금으로 이렇게 방안이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왜 안 줘요, 지금? 왜 안 주고 있어요? 왜 5개월째 안 주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명진 위원 예, 왜 안 줘요? 주기로 해 놓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은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노조법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가 뜻과 힘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한다라는 전제가 공히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 개정 노조법을 지킬 수 없다, 다시 재개정 하자라는 전제가 들어서면서……

○차명진 위원 후보자, 시간 끌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동단체, 경제단체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차명진 위원 내가 그 얘기 10초 만에 짧게 얘기했는데 후보자는 그 똑같은 얘기를 1분 동안 늘려서 얘기해요, 왜 반복.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노조법을 정착시키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또 길게 부연합니까?

그랬는데, 노조법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새 지도부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틀렸어요.

새 지도부는 1월 25일 날 출범했는데 이미 2010년 말에 끊어 버렸다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 한 달 전에 미리 끊어요? 노조법 고치겠다는 새 지도부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끊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을 통해서 자금이 간 게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의견의 합치로 자금이 오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차명진 위원 또 거기는 발을 빼네.

경영계와 노동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정부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차명진 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좀 중복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가 있어서 얘기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한 소리하니까.

새로운 노조 지도부가 나오기도 전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경영계 탓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틀린 게, 이렇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미 또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조 지도부 들어서기 한 달 전에 이미 끊었기 때문에 노조법 정착을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 노조법에 의해서 노총 지도부 못 주니까 ‘그래, 법으로는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주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경총이야 당연히 주기 싫지. 공돈 주고 싶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 주자’ 그렇게 해서 준 거였는데 고용노동부가 뒷짐 지고 있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석을 잘 해 보세요.

임금 준다고 한국노총이 그러면 노조법 정착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줘도 또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잘 생각하세요.

전쟁 포로도 밥은 먹으면서 가둬 놓는데 이것은 남의 밥줄 갖고서 ‘너희들 노조법 정착 안 하니까 이것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이것은 정말로 치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협상할 때 밥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익사업자금 부분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우리, 말을 할 때는 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그때 이면에 있었던 얘기 다 알잖아요? 못 주니까 주기로 하고, 경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쳤다고 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야, 이런 공백을 메우자’ 얘기하니까 준 거고, 그 고용노동부가 뒷짐 지고 있으니까 경총이 안 주는 겁니다.

무슨 노사 간에 자율로 주기로 했다고, 노사 간에 자율로 주기로 했으면 노조법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러면 복수노조도 자율, 노조 전임자 임금도 자율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한국적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아, 이게 단박에 자율화하면 혼돈이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 가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노조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된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 논리를 그렇게 아무거나 들이대지 마세요. 아까는 글로벌 기준 대다가 뭐 또…… 그럴 거면 왜 노조법 바꾸자고 그랬어요, 타임오프라는 것 내 놔 가지고?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제도는 정부의 몫이지만 공익사업자금은 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유성기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바로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이 공권력 투입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홍희덕 위원** 통해서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통해서 봤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거 보면 주된 요지가 ‘유성기업노동조합이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권력을 집행했고’, 외부세력에 대해서 그거 뭐냐? ‘상급단체인……’, 이것도 잘못된 건데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이.

‘금속노조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사람일 수도 있다. 금속노조 신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이적단체에 가입돼 있는 등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도 다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랬는데, 우리 장관께 노동철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경찰청장의 발언이 제정신이라고 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쳇말로 너무 좀 오버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유성기업의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

서는 비록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상 시설편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가슴 아픈 일로 생각을 하면서 경찰청장의 언급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다른 측면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번 공권력 투입은 자본의 논리고 이윤의 논리다, 그래서 결국 노조·유성기업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쪽이 노동조합입니까, 사용자 쪽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국민경제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 나름대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이 나름대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성기업의 노조와 유성기업의 회사는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나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또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내가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 노동조합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보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이것도 2009년에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대해 왔고, 사측이 가지고 나왔고, 그렇다고 봤을 때 노동자들은 정말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공권력 투입을 이윤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이렇게 보면 파업이 막 들어갔을 때 유성기업 주가가 2780원이었는데 공권력이 투입되기 직전과 직후에, 공권력이 들어간 다음에는 5월 25일 주가가 4000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43%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성기업은 큰 이익을 봤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윤의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일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주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경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12시, 1시까지는 이런 저런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대단히 우리 후보자께서 참 부지런하신 거는 뭐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이제 주야간 우리 장관님처럼 그리하라고 그러면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힘들어하겠죠. 그렇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홍희덕 위원** 이번 달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조직몰입도 및 청렴도 제고 방안을 보니까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조직몰입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업무량과 업무 강도라고 고용노동부 직원들 스스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앞서 말한 대로 주야간 2교대로 바꾸면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한 주는 야간, 한 주는 주간으로 밤낮이 바뀌게 돼요. 조직몰입도는 아마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취지로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왜 어째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과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노사 사정에 맞게 하느냐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서 유성기업 노사의 입장은 노조는 임금 삭감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그 생산량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노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파업 없이 슬기로운 해법을 자율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받기를……

○**홍희덕 위원**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차관님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노동조합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뭐 일방적으로, 2009년도에 이미 합의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그러면 빨리 협상을 하자 해서 열두 번—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했어도 아무런 안도 안 갖고 나오니까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보통 들어가면 하루 이틀이라도 있다가 직장폐쇄를 하는데 바로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용역을 갖고 배치해서 조합원들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다 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직장 폐쇄 해 버리고. 그리고 관리직이나 비조합원들 집어넣어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동부에서도 우리나라의 10인 이상인가요, 조사에 착수했죠,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OECD에서 우리는 노동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31개 국가 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라는 계획 하에 진행된 실태 조사의 개시라고 말씀드리고.

유성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것이 노조의 파업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대체근로, 직장폐쇄를 사후적으로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노조가 시설점거를 하면서 즉, 사측이 시설 관리를 하지 못하게 노조의 시설점거행위에 따라서 빚어진 일이라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열한 차례 교섭이 있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그런 아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 해법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안도 안 갖고 백지만 갖고 열두 번 나오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넣어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시설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시설을 점거하기 바로 직전에 회사 측에서 아까 위해를 가한, 살인행위를 한, 13명에 중상을 입힌 부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건 그다음 날입니다. 시설점거 그다음 날입니다. 사후적인……

○**홍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설사 노동자들이 용역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측이 명백하게 고용한 용역 직원이 대포차를 갖고, 잘못된 차를 가지고 시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는 노동자들 향해서 돌진을 해서 13명에게 중상을 입혔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쫓겨나는가 보다…… 과정상의 시설점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하셔야지 않아서…… 직접 가 보시지 않았잖아요? 정황들, 이런 것들 보고 하셔야지 지역에서 보고하는 것만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점거만을 앞세워서 이렇게 불법으로 매도해서 되겠어요? 예?

우리 장관님이 되시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노조의 정의행위는 시설점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희덕** 위원 나도 압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출신 손범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총무과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 문제, 금품 수수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또 후보자께서 여기서 답변한 내용 이걸 더 종합해 보면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이 되고 있고, 받았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었다, 돌려주었더니 맨 처음에 돈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받더라, 여기까지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받은 것도, 준 사람도 줬다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그리고, 다시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기도 받았다고 그래요. 일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후보자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칼날은 뭐냐 하면, 또 그리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한다는 그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때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판사가 판결을 너무 늦게 해 주면, 분쟁 해결을 해 줘야 될 판사가 때늦게 너무 늦게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가치가 없어요. 빨리빨리 해 줄 때 해 줘야지.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상당 기간 있다가 돌려주면 돌려줬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미 기수(既遂)에 이릅니다.

왜냐? ‘이 돈을 받아서 내가 꿀꺽 먹어도 되나?’라고 이렇게 속칭 간보는 기간이 길면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반환 조치를 즉각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시간에 돌려줬다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더 높은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즉 후보자가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충분한, 사전에 어떤 당부라면 당부, 교육이면 교육, 부탁이면 부탁을 철저히 해서 부인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즉 봉투에 쌓였건 화장품과 같이 들어왔든 상자에 들어왔든 어쨌든 그 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엄격성이 있는 공직자, 좀 더 훌륭한 공직자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입니다. 국민의 기대는 그렇게 높은 겁니다, 국무위원이 될 사람한테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상자로 받았건 화장품과 같이 왔건 후보자의 주장처럼 서류봉투에 이렇게 와서 테이프를 발랐든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돈을 줬다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 반환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다음 날이고요, 제 처가 만약에 돈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안 받았답니다. 돈인 줄 모르고……

○**손범규** 위원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온 시간이 얼마 됩니까, 대략? 퇴근 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마 퇴근 무렵이었던 것 같고요.

○**손범규** 위원 그러면 대략 오후 6시, 7시라고 치고 반환된 건 그다음 날 몇 시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다음 날 오후 쯤 될 겁니다. 그다음 날 오전에 제가 오라고 불렀더니 오지 않았습시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날, 돌려주려는 그날 오후에 제가 비서를 통해서 김모 씨가 자리에 있는지 알아봐라, 있다 하길래 제가 바로 들고 내려갔습시다.

○**손범규** 위원 출근하자마자 바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니지요, 그다

음 날, 돌려받은 날, 그러니까 집에 제 처한테 놓고 간 날 제가 퇴근해서 책상에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제 처는 행정봉투에 서류라고 하니까……

○**손범규 위원** 자, 그다음 날이 됐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건네 놓은 것이고……

○**손범규 위원** 어허 참, 그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다음 날 출근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손범규 위원** 출근하자마자 바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아니면 또 몇 시간 지났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침에 가면 이런저런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직후에 그분을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저녁 때 퇴근해 가서 봤을 때 서류봉투라고 하지만 서류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즉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가져가.” 이렇게는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손범규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로서는 그다음 날 출근해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조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 집사람도 만약에…… 한지 상자나 화장품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과장이 보실 서류다라고 해서 받았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질을 깨달았을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이야, 무슨 되지도 않는 부탁을 하면서, 불가능한 부탁을 하면서 돈을 가져왔길래 내가 그다음 날 그걸 돌려주기까지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돈을 다 받아놓고서, 돌려줘서 받아놓고서 말이야,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야기하고 말이야, 아주 짜증스럽다 내지는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결코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반환을 즉각 했어야 되는데 한 시간도 아니고 바로 즉각, 더 나아가서는 그런 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바람에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결과적으로 논란이 분분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로서 국

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짜증스러운 내지는 좀 황당하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게 결코 바람직한 반응이 못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특히 국무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라왔을 사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일반적 상식으로 돌아가 보시지요.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라고 그래 봐요. 아니, 되지도 않는 돈 말이야,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도 없는 놈의 부탁을 하면서 돈 가지고 와서 자꾸 먹어라, 먹어라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안 받겠다 말이야 하고 돌려줘서 자기도 받았어, 그런데 뭐가 어떻다고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적반하장이다. 이거는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그 돈 근처에 있었고 그 돈이 집 안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반환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할 때 좀 더 공직자답게 좀 더 국민을 향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자꾸만 말이 되지 되지도 않는 부탁을,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되지도 않는 부탁을, 될 수도 없는 부탁을 하고 자꾸 돈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과 뭐 별반 차이가 없게……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 좀 웃기는 사람이예요, 후보자의 주장이 역사적 진실이라면. 그런데 그 웃기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사실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인사 혁신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제게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을 저는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관리를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명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로 이렇게, 이런 의혹이 일어난 것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 의혹이 일어나는 자체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혹 자체가, 이런

의혹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생도 되지 않을 만큼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과거, 과거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다소간의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비판을 받게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푼 털어놓고 인정하면서 “국민 여러분, 더 의젓하고 더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놈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야지,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접하는 후보자의 시각이 당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의젓하게 답변 잘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자기 관리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시다.

○**손범규 위원** 잘하지는 못 했네, 100% 잘하지는 못 했네.

엉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앞에 “나는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강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만하게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정리합시다.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후보자님,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한번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은 346만 개인 데 반해서 대기업은 오히려 49만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통계를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최근의 통계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대기업의 경우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고용 인원은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즉, 기업체 단위로 하느냐 사업체 단위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수치가 좀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기업규모별 그 율을 감안한 표본 추출이 아닌 관계로 좀 틀리게 나타나는 게 있고, 사업체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대기업을 경우에도 늘어나는 것으로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통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경제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이 부분 들은요.

○**金容九 委員** 그리고 어찌 됐든 간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데 대기업은 줄은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덜 늘어난 상황……

○**金容九 委員** 그래서 대기업을…… 이게 이런 문제가 말이지요. 고용 없는 성장이다, 대기업이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그러시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도 많기도 하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가 명실상부하게 공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녹색기술이라든지 부품산업·소재산업 이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크게 육성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에 뒷받침될 수 있는 인력들이 잘 양성되고 공급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또 통계를 보면 말이지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2009년도에는 2.8%에서 2010년에는 3%로 늘어났어요. 자꾸 이것 늘어난단 말이에요.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깐 이게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도 좀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또 막상 가 보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중소기업에 가서 인턴을 해 봤더니 의외로 괜찮다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정착한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해 봤더니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의 86%가 해당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분들이 1년 뒤에도 그 직장에서 유지하는 비율이 76%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또 작업환경도 최대한 좋아지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면 청년실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차관 시절에 말이지요, 얼마 안 되지요. 차관 시절에 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이런 고용대책을 수립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작년 10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 즉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청년층을 위주로 한 일자리를 7만 1000개 이상 만들어 내자, 그 7만 1000개 가운데 4만 2000개를 2011년도에 청년에게 기회가 되게끔 하자라고 해서 현재 4월 말까지 1만 6000개 정도는 청년에게 일자리가 부여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늘어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2011년 2월 현재 보면 말이지요, 46만 9000개가 이제, 작년 12월의 45만 개보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0년에 8%에서 2011년에 8.5%로 0.5%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은 거꾸로 실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청년의 고용률은 인구구조상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진학률이 높아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는 지표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29

세 이상…… 25세 이상이네요. 25세 이상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24세 미만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이런 연령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앞에서 지적했지만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 지금 늘어났지요? 늘어난 건…… 통계상?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맞습니다,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뭘니까?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통계숫자가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게 이제 인력 차원의 문제하고 기업 차원의 문제하고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3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층의 경우에도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정보의 미스매치이기도 하고 숙련의 미스매치이기도 하고 해서 겹쳐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것 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이 말이지요, 이것 12년 만에 아주 효율 인상…… 효율이 22%나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효율이 이제 실업급여 계정 수지 적자가 2008년도에 3600억, 2009년도에 1조 5000억, 2010년도에 1조 1700억, 이게 자꾸 지금 현재 악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말이지요, 이 기금을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을 쓴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나라는 실업보험제도라고 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담기 위해서 고용보험이라고 했고, 이번에 효율이 인상된 부분들은 실업급여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실업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해서 실

업급여 지급액이 보통 2008년 이전까지는 2조 원대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조 1000억 원이 지출이 되고, 2010년도에는 3조 6000억이 되었습니다. 즉 통상시보다 1조 5000억 이상이 더 지급이 된 것입니다.

해서 수입과 지출 차원에서 지출이 늘면 당연히 수입 부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2008년도에 노사정이 합의하기를 법정 적립 배율을 설정했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1.5~2.0배 사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요율을 노사정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0.9에서 1.1로 실업급여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정수급자가 매년 급증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거나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기금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22%씩이나 인상한다, 이런 것은 노동정책에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한 푼의 돈이라도 누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하고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좀 전에 김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은 그렇게 고갈상태라서 올려 가지고 다시 채우려고 하는데 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준치보다 오히려 1.4배 정도로 이렇게 양호하게 관리가 돼서 그게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2000억을 들여서 직업체험판도 만든다, 또 고용지원센터 청사 짓는 데 한 5000억 원 정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맞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계정이라고 있는데 현재 법정 배율은 1.0에서 1.5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배율은 1.4에 해당됩니다. 재정 자체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잡월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근로하는 청소년들, 앞으로 일하게 될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진출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관 형성이 필요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일하는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실업자, 구직자, 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해서 자꾸자꾸 임차해서 옮기다 보니까 민원인이 알 만하면 다른 사무실로 가고 여러 가지 임차료 부담, 또 이사비용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투자한 것이고, 그 부분도 고용기금의 자산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실업급여 계정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정하고 비율이 지금 7 대 3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금액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예.

○**조해진 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닙니다. 계정이 구분되어 있고 요율도 실업급여 계정 따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율도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칸막이 간에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해진 위원**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하려고 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고용보험기금 안에 있는 계정인데 한쪽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꼭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더 걷어서 근로자들하고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

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잡월드, 직업체험관은 처음에 노동부에서 계획을 보고했을 때부터 제가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대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입장인데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예산 들고 실제로 기대했던 효과는 제대로 못 거둬 가지고 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받기에 딱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근본부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나서 다시 또 두 번, 세 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그래도 필요하다. 더 잘해 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일본도 가 보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정말로 원래 취지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일찍부터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도 걱정이 아직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도 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되도록 정말로, 이것은 우리 노동부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보다도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의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잡월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요. 운영을 효율화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이, 제가 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관·박물관 필요하듯이 이 부분도 정말 잘 운영해서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아까 계정 조정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은 보험료 부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계정은 사업주만 보험료 부담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포함해 가지고 최근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회사 측에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사업 정리하는 수순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렵다 보

니까 자구책으로 경영상 해고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 전제가 만에 하나 다르다면 그것은 원점에서 또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조해진 위원** 지금까지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이 나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을 거두어들이는, 정리하는 수순이라면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정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조해진 위원** 가정하셔서 만약 그런 사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쭙어 보는 건데 법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조정을, 사업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러면 검토를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 중에서 노사 간 단협 체결 내용 중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단협이 쌍방 간에 어떤 묵시적,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시정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나름대로……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단협의 근로자 후생복지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법 테두리 내의 내용에 관한 협약이 아닌 그것을 벗어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든지 인사에 관여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책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그런 영역에 서로 합의 체결을 하는 사례들이 그 이후에 시정되고 있는지 여쭙어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교원노조의 경우에 근로조건 유지 개선 사항과 다른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협에 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학습권의 보호와 연관된 사항을 다룬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빨리 좀 처리가 되어서 법 취지가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신입사원 모집할 때 정년퇴직한 직원 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그런 채용 규정을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단협 내용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 당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오전 질의에서 한진 사태와 관련하여 충분히 조력했다, 노동지청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한진 조합원들이 방청하다가 나가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치고 갔습니다만,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지청장이 취임해서 인사차 한 번 왔었고 그리고 ‘노사 교섭하는데 양측이 양보해서 잘해 봐라’ 이렇게 짧게 인사말하고 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충분히 조력했다 하는 얘기는 과장된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신속·공정한 해결 노력을 해야 할 노동부가 결과적으로 방치한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부산 영도 한진조선소 사태는 400만 부산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부산 최대의 기업이고, ‘도대체 이 나라에 노동부가 있는 건지?’ 부산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도 있지만…… 차관도 하고 노동국장·실장 다 했기 때문에 한진 사태, 한진과 관련한 부산 시민이나 조합원들 입장으로 본다면

후보자는 승진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제 국무위원후보자가 됐는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 부분이…… 하여튼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심성의껏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말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리하고,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서 ‘긴박한 경영 필요’ 이걸 지노위가 인정해서 쟁송 중인데요. 이 지노위는 사실상 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지요. 그런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서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내리 영업흑자, 영업이익을 내와서 한 사천몇백억 이익을 냈고 최근 2010년만 해도 500억, 2009년에 600억 이익을 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 최근까지도 이익이 났는데 1000여 명을 정리하고 한 것 이것은…… 노동부장관의 직무는 정부조직법상 근로조건의 기준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이걸 포함한 노동사무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복지후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자리 안정 아닙니까.

또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한진조선소’ 좋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 좋은 일자리에, 10년간 쪽 영업이익 난 회사에서 이렇게 1000명씩이나 정리해고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서 노동부가, 신입 노동부장관후보자가…… 아무튼 좀 지켜보겠어요. 열심히 이 문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쌍용 문제입니다, 쌍용자동차.

15명이 희생됐는데 우리 이채필 후보자가 노동국장하시던 시기에 3명이 자살하거나 또 돌연사했고 기초실장하던 시기에 5명이 사망했고 또 차관으로 재직 중인 그 기간 동안에 7명이 돌연사하거나 자살, 사망했다 단 말이에요. 전부 15명 1년 반 시기에, 한 2년의 언저리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지요.

이 쌍용자동차, 우리 신입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쌍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가운데 한진중공업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특히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노동위원회 스스로 독립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노동부와 연계하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로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동영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농성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쌍용차 관계자, 그리고 평택시청, 노동지청 관계자를 제 방에서도 만나서 특히 지금 무급휴직하고 있는……

○정동영 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날 노사협상이 이루어져서 쌍용차의 임원을 만났습니다. 임원하고 평택시에서는 담당국장이 오고 고용부에서는 지청장이 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사 쪽도 만나고 시 쪽도 만나면 무급휴직자 대표들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요, 우선 무급휴직자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제시한 문건이 1년 뒤에 순환휴직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다가 회사로서 소속감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애매한 상태로 할 것이 아니라 물량을, 차를 몇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면 무급휴직자가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숫자를 밝혀서 예측 가능하게라도 해라, 회사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무급휴직자이기 하지만 여러 가지 직업훈련도 받게 하고 또 필요하면 생계비 대부 부분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이 휴직자이기 때문에 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적을 갖고 있어서 다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낸 바가 있고……

○정동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동영 위원 그 연장에서 무급휴직자 대표들도 면담 신청을 하면 만나서 직접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결코 저 피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또 현재 쌍용의 창원공장은 일감이 밀려서 지금 잔업, 오버타임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무급휴직자들이 있는데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인도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노동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 회사는 아무래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게 신뢰 속에서 발전하는 건데 약속이라는 것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정부에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쌍용차 2009년 8월 6일 합의, 이 합의대로만 해도 이렇게 15명이나 되는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8월 6일 약속 이행에 장관후보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전국 평균이 10% 갓 넘는 수준입니다.

○정동영 위원 10점몇 %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10.1입니다.

○정동영 위원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까,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조직률 자체를 가지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잖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이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치판단으로 할 수는……

○정동영 위원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아까 차명진 위원께서 후보자의 노조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자세를 질타했기 때문에 바로, 노동자들의 복지후생이 증진하는 것은 노조 조직률이 올라갈 때 증진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교섭하고 또 주장해서 그것을 권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실천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실장 때문가요, 차관 때문가요? 100만 대란설, 우리 후보자께서 주로 하셨다 하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 생각이 같습니까? 비정규직법 시행되면 100만 대란, 실업자 대란이 온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그 업무 담당 부서를 맡지는 않았고요.

○**정동영 위원** 그때는 무슨 직책에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마 노정국장 시절에……

○**정동영 위원** 노정국장 소관 업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근로기준국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노정국장과는 관련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접 관련은 없고요, 부서가 업무 분장이 다르니까요.

○**정동영 위원** 알려지기로는 100만 대란설의 주역이 우리 장관후보자였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근로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여러 위원께서도 지금 아마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주거에 대한 지원 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의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후보 흠집 내기를 경계한다’ 하면서 ‘실무형 인사가 수뇌부를 맡아 일하게 된 것과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장관에 오를 만큼 사회가 차별 없이 평등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 측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률이 낮

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2.24%인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현재 전체 평균이 2.24 수준입니다.

○**신영수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장애인 등록 인구는 지금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전체 인구의 5% 수준입니다.

○**신영수 위원** 인구는 한 252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래서 의무고용제를 도입을 했는데 아직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공기업도 그렇고 민간기업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장관되시면 대기업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장애인고용의무제가 91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2011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습니다. 91년 시작할 때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0.4%대였습니다. 지금 2.2 수준이기 때문에……

○**신영수 위원** 장관후보께서는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길게 하시려고 그래. 짧게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주요 업종별 사업주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고용에 나서게끔 직접 뛰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지금 우리 건설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오전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하

는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건설 부분이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 150만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역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인력시장, 소위 인력시장이라고 그러합니다.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인력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 보면 그분들 주장이 '외국에서 오신 인력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는 우리 동포도 있고 순수하게 외국인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인력하고 외국인 인력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150만 가운데서 국내 인력이 12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외국 인력이 20만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력들도 꽤나 있을 것으로 봐서 건설 부분에 생각보다 외국 인력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 대체성 문제도 있고 또 임금 수준을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등록되지 않고 비공식 인력까지 합치면 상당히 되는데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또 3D 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한 그 근무여건, 공법,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가서 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현장 중에서 가장 낙후된 그런 분야가 건설 분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보면 산업재해라든지 이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내가 지적하고자 하시고 하니 그분들 말씀이 외국인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도 올라가지도 않고 또 이제 이 경기와 연관돼서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그것이 국내에서 먹고 쓰고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도는데 받으면 상당한 부분이 본국으로 송금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살아나도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 국내에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런 부분들도 참 걱정거리입니다.

건설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산재부분도 좀 취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 달리 임시 일용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시고용의 건설 분야 종사자가 많은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개발도 되고 산재예방도 일정 수준 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날그날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외국인력들이 와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유보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쳐야 될 점이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신영수 위원** 지난번 박재완 장관한테도 유보임금 말씀드렸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외국제도도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짜기 위해서 부처간에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건설경기가 돌아야 가장 빠르게 경기가 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또 많이 안 가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법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국토해양부 소관이겠지만 이 작업환경 변경한다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이 문제는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고용노동부에 대한 청렴도를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절대점수는 조금 올라갔어요,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에. 그런데 상대적인 순위는 좀 하락했습니다. 아까 홍희덕 위원이 질문하셨지요?

여기서 이제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우리 부에 2006·2007·2008년도에 무려 1600명 가까운 신규인력이 7급과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못한 그런 상황에 있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청들이 47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자기 연고지가 아닌 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자에 대한 민원들이 있고 특히나 요즘은 조금 민원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도 있고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서 동시에 중간 관리자들의 멘토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 취약한 나머지 조직의 응집력보다 원심력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좀 더 싸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좀 규제 중심의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사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가 또 민원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과다가 되어 있어요.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은 많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규제행정이니깐 외부인이 볼 때는 좋게 평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내부 만족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 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우선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각 권역별로, 청별로 직

원들 대표가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조직몰입도 개선대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를 한 1년간 지켜봤는데, 매우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위주로 개선을 좀 해서 대민 봉사 활동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장관에 취임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잘 모시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채필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노동계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봤습니다.

○**이미경 위원** 뭐 ‘반노동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동안 노동부차관으로 일하시면서 노동자들이 보기에 보다는 반노동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본인이 ‘반노동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냥 친일자리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노동부장관이 ‘반노동적이다’ 하는 지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저는……

○**이미경 위원** 팬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구직자와 근로자와 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생각하고 터득한 방안들을 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방향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관계, 유불리 속에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뭐 그러니까 그것도 옆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노사관계에서 법치·자치를 통한 자

을교섭, 이것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노동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보호법, 파견노동자법 등 이런 노동법들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자로서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 주기 위해서 생겨난 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법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또 유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노동부에서의 법치와 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들이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법대로 우선 잘 지키도록 하라는 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법을 최소한으로 잘 지켜서 삶의 질의 개선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거하고 이 법 잘 지키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같은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자마자, 지금 청문회 이전에 유성기업 노사분쟁 사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는데 노동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인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물었지만 유성기업의 사태에 대해서 ‘목적과 절차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주체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미경 위원**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과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밟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유성기업에서 노조가 밟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불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점거한 것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주체나 목적은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었는데 수단과 방법상, 쟁의행위라 하면 노무제공을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시설을 점거해서 회사 측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한 것이고 그것은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교섭을, 12차에 걸친 교섭하고 사전조정을 죽 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절차는 다 밟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정중재 결정이 나왔어요, 사측은 아무런 제시안이 없었고. 그래서 쟁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78%가 찬성했는데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측이 직장폐쇄를 공고를 했고 그 이어서 지금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거가 됐고요. 그런 상태지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러니까 노조의 쟁의행위가 먼저 있었고 회사에서는 방어적인 직장폐쇄가 이루어졌고……

○**이미경 위원**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쟁의행위가……

○**이미경 위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노동부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쟁의로 보느냐, 쟁의행위서를 신고했느냐 하는 거에서 노동부가 보다 더, 훨씬 더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박하게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측은 직장폐쇄를 바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차관 하시면서, 직장폐쇄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직장폐쇄 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아무런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용주한테 많은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폐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직장폐쇄 해

놓고 나서도 안에서 작업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노조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마찰이 생기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고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내리는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상당히, 법원조차도 직장폐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노동부는 거기에 대해서 늘상 솜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노동자들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출근 투쟁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하고 막아온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눈 감고 있고 그것을 그냥, 직장폐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대로의 제재를 안 가한 노동부 그리고 거기에서의 실무적인 총책임자인 차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용자편만 들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노동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조의 정의행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관계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로서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폐쇄라 하면 노무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직장폐쇄입니다. 즉 파업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노무 제공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직장폐쇄이고 동시에 그러면 다른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은 것이, 즉 사측의 관리권을 막은 것이 시설점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장폐쇄를, 노사가 다툼이 있을 때 사측이 직장폐쇄다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조차도 '공격적인 직장폐쇄다'라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내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감시·감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장폐쇄는 사후적, 소극적,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요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공격적 직장폐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재까지 저희

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 '합리적인 교섭과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노조에 대해서는 생산라인 점거한다든지 불법 피케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고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이 세 가지를 해서 3대 쟁의질서 개선과제 집중지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뭘 제대로 했습니까? 그동안 안하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하고 판단을 먼저 내리니까 이것은 '반노동적이다, 친기업적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데 공격적인……

○**이미경 위원**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살펴서 대처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불법이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희가 일선으로부터 보고받기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법에……

○**이미경 위원** 어디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법 요건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적, 방어적, 소극적인 직장폐쇄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미경 위원** 유성기업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유성기업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공격적인 직장폐쇄의 그러한 요건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유성기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노사관계가 좋았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게 되고 전경련, 경총, 현대자동차 등등이 나서서 하고 보수적인 언론들이 이 문제를 대서 특필하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 미칠 수 있는 과급력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유성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대자동차한테 미치고 다른 자동차산업에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파업에 관여했다라는 그러한 이 문건도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 부당한 지배, 개입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야지 공정하게 해 나가는 것이지 대기업이 관여하고 전경련이 관심 갖고 있으면 어느새 그쪽 편으로 옮겨가 있다면 누가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특정 기업의 입장을 감안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5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 소속된 협력업체 수천 개의 근로자, 가족, 우리 국민경제를 생각했을 때 불법행위만 없었다고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비롯되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노동자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는다 하는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지금까지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시간인데 추가 질의 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했다가 16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방법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강성천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통해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지표로 삼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조금 전에 신영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실업이 8.7%에 이른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청년 니트(NEET)족이 지금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청년실업률이요?

○**강성천 위원** 청년 니트족, 니트족의 수. 청년실업률은 8.7%라고 아까 얘기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청년실업률은 8.7%고요, 청년 가운데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해서 실업자 더하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건이 주어지면 취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이 니트족의 실업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말하자면 고학력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학력 부분도 있고, 니트족이라 하면 에듀케이션·트레이닝, 교육도 훈련도 안 받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니트족에 대한 실업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니트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음에 들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교육도 훈련도 고용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학교 단계에서 조금 산업사회를 알케끔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서 썩거리도록 너무 보호를 하는 것도 조금 의존심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행법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습니다.

○**강성천 위원** 낮지요.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는 퇴직 이후의 노후보장에도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게 분명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후보자는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퇴직연금 혜택에 있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된 곳이 48% 정도 되지만 300인 미만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300인 미만 중에서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까 내려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름은 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로 법령을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영세한 사업장 위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후보자, 요즘 고용기금을 관리하는 그 과정, 기타 부정 수급자가 많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 근절이 도무지 매년, 지금 3년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지 않는데 그 근절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본적으로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급여 지급자 숫자,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는 부정 수급될 수 있는 인원이나 금액이 좀 느는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그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고용센터 직원들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산상 이런 것을 경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마는 모자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감시·감독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지난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숫자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작년에는 3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주도한 수출 대기업들이 고용문제 해결 같은 사회적 책임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외면했거든요. 그리고 사내 하도급, 외주 하청 등 노동비용 아끼기와 기업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사업체 통계를 가지고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줄지는 않고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조금 느다라고 해서 대기업이 고용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들을 보다 더 크게 개선을 하고, 또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여건 악화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하청 관계 개선을 해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단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조건,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다지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성기업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유성기업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1일 2교대를 합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단체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하고 월급제 도입을 주장을 했고, 사측은 생산량 확보에 대한 논의 후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서 그동안 특별 단체교섭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는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향해서 노사가 의견 교환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합의할 예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합의가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 목표로 노사가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경우에 참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수단이 없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금품 수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언론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질문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의구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질문에서도 물었지만 “별정직 6급이었기 때문에 일반직 5급으로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라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니깐 “민원실장이 일반직인데 그 자리에 못 간다.” 또 이렇게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때 개방형 직위를 공모해서 타 부처 공무원들이나 일반 전문성을 갖는 분들을 채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가 똑같은 답변을 다시 하겠지만 도저히 이걸 납득할 수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민원실장의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이 별정직 6급에서 개방형 공모직 자리였다면 5급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로비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본인, 그러니까 김 씨라는 분은 우리 후보자의 집에 부인과 같이 가서 한지상자에 화장품과 함께 갖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보실 자료라고 하면서 전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 과장님은 퇴근시간 무렵이니깐, 공무원들이 통상 퇴근시간 6시, 7시 딱 맞춰서 퇴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전달해 줄 수 있을 텐데 과장님 보실 자료라고 하면서 집에 갖다 줬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취재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한 배경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기자가 이것을 2008년도에 이미 알았답니다. 2008

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김 씨를 취재해서 똑같은 내용의 그런 증언을 확보했지만 당시에는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되니까 아예 이분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문사 기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장관후보자하고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없는 사실을 무조건 그렇게 자기가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운영과장이 전화를 기자에게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실에서 돈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운영과장은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묻기만 했다 그러는데 이 한겨레기자가 자기 수첩에다 다 적어 놨답니다. 증거가 다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총무과장과, 제가 볼 때 후보자 사전에 입을 맞추고 총무과장실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것이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깐 이렇게 민원실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려줬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 장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돈을 줬다는 김 씨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게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후보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을 바꾼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의혹을 여기서 완벽하게 어떤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고 돌려줬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과연 하루 뒤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이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게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덕성의 측면에서는 자

격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결백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홍영표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앞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고요.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정말 결백합니다. 결백했고, 김모 씨의 경우에 오직 원하는 것이 민원실장, 일반직 5급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누가 같이 왔다,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행정봉투에 자료를 갖고 왔지 다른 것을 갖고 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농협 과천청사 지점에서 빌려서 상환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자료를 좀 확보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정말 황당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별정직 6급인 김모 씨의 민원실장이 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일반직 6급이 일반직 5급으로 승진하면서 갈 수 있는 민원실장이 되기 위한 돈 봉투 사건,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후보자가 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분에게 돈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줬어요. 여기 후보자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일반직일 거예요.

그러나 별정직이 됩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자기가 일반직 5급이 되는 것을 가고 싶은데 못 가면서 갖은 방법을 다 사용했다, 물론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 방법을 쓰게 된 그런 연유를 이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계신 후보자였다면 ‘지금 우리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말로 인사에 있

어서 벽이 없나,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돈봉투를 가져왔었다, 그거 안 하고도 승진시킬 수 있도록 이 벽을 허는 방법은 없나’, 나는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잔치를 위해서 승진 인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맡겨 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람을 배치하고, 역량이 되는 사람이 승진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원래부터 경력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분야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그 자리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후보자가 참 인식에 있어서 ‘저렇게 좁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별정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원래부터 저 사람의 스펙은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고요. 정말로 그 양반이 스펙이 그것밖에 안 됐으면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지 ‘너는 원래부터 안 되니까, 너는 원래부터 별정직이었으니까 일반직은 꿈도 꾸지 마라.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차별이에요. 그것 한번 잘 덕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돈 봉투 받았나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1일 노사정,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새로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시행령을 합의를 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 합의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뭐냐, 산별·지역별 전국단위 노조의 상급노조 활동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갖건 간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라는 노조법 제24조2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행령에 합의를 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시행령에는……

○**차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시행령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이후 8월 달에 120억을 경총에서 들어서 2년간 한국노총에서 이 시행령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리고 노조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조건으로 2년간 한국노총 상급노조 임금을 대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줬다는 말입니다.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노사 자율사항이고 그리고 또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조법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2월 29일……

○차명진 위원 아, 변함이 없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당시 시점에서 이것이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그런 전제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2010년 5월 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와 관련해서 뒤늦게 ‘그래도 구제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연착륙을 위해서 법리상으로 타임오프는 해결 안 되지만 다른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진전이 된 사항입니다.

○차명진 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저 양반 자꾸 자기가 혼자 ‘법리, 법리’ 하네. 법리에 대한 해석 권한 없어요, 후보자.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라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더 더욱이 없었고요. 왜 자꾸 법을 만든 위원이 이 법리가 이렇다, 그런 의도로 지금 건전한 노사관계에는 상급노조 활동이 건전한 내용에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자기가 곡해해서 해석을 합니까? 그것 월권 아니에요? 월권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당이니까 시행령이 원법에 안 맞다고 위헌소송 안 해서 그렇지요, 나는 야당 위원님들이 그거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도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하시냐 봤더니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참 안타깝게.

다른 상임위로 가 버려서 그래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 제기했으면 거기에 동의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노동부 일개 기획관리실장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법리해석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지금 지나니까, 발언 기회 주니까 또 자기가 법리를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말이에요.

국민이 다 보시면 다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진짜 끝장토론 하렵니까, 나하고?

그리고 그것 말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야. 한국노총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니면 한국노총에 무슨 압박을 줬는지 그렇게 잘못된 시행령을 한국노총이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2년 동안 월급을 경총에서 대주기로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에다가 회유를 해 가지고. 이것 사실은 편법이에요, 편법. 그러나 일단은 한국노총에서 ‘그래,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러면 노조전임자 임금을 댈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러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러면 월급 대줘라’ 한국노총에서 굴욕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치사하게 남의 밥줄 갖고선 줬다 빼앗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여쭙 봤더니 ‘우리 고용노동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발을 빼는데 그때, 제가 알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에다가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관심사항,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경총에다가는 ‘주지 마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 드릴까요?

○차명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공익사업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감을 이루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경영계에서 노동계에다 공익사업 자금을 중단한 것은 2011년 2월부터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2011년 2월부터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도부가 새로 바뀌면서 그랬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 걸로……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바뀌기 전에

도 안 줬다라는 제 얘기에 대한 반론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뭐 그것은 사실확인 나중에 해 보면 알겠고, 먼저 안 줬는지, 아니면 지도부가 바뀐 다음에 안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공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노조 정착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명분이었어요. 물론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조법 바꾸자고 얘기 안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노조법 바꾸자고 얘기해도 그것은 원래부터 노조법을 통과시킬 때 한국노총 지도부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엔 안 들지만, 한국노총 지도부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줄 것은 줘야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치사하게 남의 급료 가지고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치사하다는 것 잘 모르세요?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또 하시지요.

○차명진 위원 그거 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노조운동에 대한 아주 몰인식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최저임금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190만.

○홍희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190만……

○홍희덕 위원 예, 190만……

가사노동자, 감액 적용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면 그래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미만으로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분입니까?

○홍희덕 위원 영향 받는 분은 한 200만 되고 이래저래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적용 못 받는 계층이 몇 명이나 되느냐…… 94만 명이라고 이것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시기를 정해서 최저임금 위반 집중 단속하고 있지요? 후보자님, 그래요? 매년 시기 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알바를 많이 하는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지방관서의 사이버센터를 이용해서 당사자들의, 불이익 받는 사람들의 신고도 받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할 때 위반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1년에 한 8000건 됩니다. 최근 5년간 한 4만 건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어나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못 주는 경우도 있겠고, 또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나름대로 일반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측면도 일부 작용을 한 것이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후보자님, 최저임금 인상률은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10년간 평균해서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는 노동부의 부실한 감시·감독, 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 위반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

○홍희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후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고, 사법처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그 수치를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후보자께서, 특히 수장이 되려는 분부터 최저임금에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이 법제화가 된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린 것은 고작 6건입니다. 사법처리된 것은 55건에 불과하고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자가 94만 명이고,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4만 건이나 넘는데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앞으로 근로자들이 특히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열성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또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사업주가 올해 최저임금은 4320원인데 우리는 2800원밖에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말로만 최저임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서는 사실 최저임금에는 지난 26년간 관심이 별로 없었다, 오직……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런 말씀은 우리 후보자께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법처리가 된 55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도무지 감감무소식이예요, 알고 있지를 않아요. 통계 안 갖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검찰에다가 넘기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홍희덕 위원** 넘겨 놓고 나면 그뿐이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자료 관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해당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법무부에서 협조를 안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검찰에 이송된 사건의 결과를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법이라도 만들어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최저임금 사건들 판결문을 열람해 보고 정리를 해 갖고 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최저임금 이렇게 위반하는 사업장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인데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이따가 연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출신 손범규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희덕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셨어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경비요원, 경비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감액을 30%를 차감해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참, 정말, 지금 최저임금 규정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시급 4320원인데 30%를 깎아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해서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70%를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손범규 위원** 그 직원들도 참 답답하구먼.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3024원 되겠습니다, 시급.

○**손범규 위원** 아니, 30% 감액하지 않으면 얼마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시급 4320원입

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 다 곱하면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을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요.

○**손범규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200만 원 아닙니까.

○**손범규 위원** 한번 계산해 봐요.
자, 봅시다.

이러한 근로자는 소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다 해서 30% 감액하지요? 30% 감액의 근거가 그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30%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해요. 그런데도 액수가 너무 많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선의 입주자대표들이, 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경비종사자 하시는 분들한테 ‘자라, 자라’ 자라고 그래요.

후보자, 아파트에 사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손범규 위원** 자, 계속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30% 감액을 법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기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이 없다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못 줘요.

그러니까 그 경비종사자들한테 밤에 좀 자라 이거예요. 12시부터 4시까지 자든지 가서 좀 자라. 왜냐? 안 자고 근무하면 다 줘야 되니까 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래서 안 자고 있어도, 안 자고 밤새워서 근무해도 돈 안 줍니다, 입주자대표들이. 안 줘 버려요. 자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야. 왜 잠 안 자고 돈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래 놓고 무슨 사고가 생겼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입주자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왜 경비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노동유연성도 달성하고, 말하자면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은퇴를 하고 아파트 경비 80만 원, 90만 원만 받아도 내가 경비 저거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은 줄을 서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줄을 서 있고, 들어가서 경비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 보장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갖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돈 못 주고 있고, 못 주거나 안 주고 있고 이럴 때에는 노동부장관으로 되면 테크노크라트들 다 모아놓고 현실은 이렇고 규정은 이렇다, 이런데 많은 사람이 경비를 하고 싶다, 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달성하고 최저임금제도 달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경비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 근로시간을 그렇게 길게 밤새우고 말아야, 실질적으로 밤새우면 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8시간 근무제, 6시간 근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규정도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007년까지는 30%까지 감액할 수 있었고 2011년까지는 2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즉 높아지면 오히려 고용,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그 금액의 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할 경우에는 다소 임금을 조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허울뿐인 최저임금 가지고, 주지도 못하면서 그것 가지고 범법자만 양산하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또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장관의 임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접근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또 규정으로 밀어붙인다는가 하면 좋은 취지도 탈색되고 잘못하면 시민단체 등에서 오해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부의 이런

진의를 제대로 홍보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일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허울뿐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안 지키는 데는 확실하게 손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기존의 직책에 있던 분들이 실업하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해 나가야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타임오프제 매뉴얼도 본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법의 취지와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권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을 검토해서 법의 정신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법 만드는 국회의원하고 법리 논쟁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적 계속 받고 말이에요. 태도가 좀 이상한데?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까? 검토해 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열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팩트를 빼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팩트 빼고 당위적 문제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구체적인, 실사구시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함께 방법론으로서 소통, 공감, 이런 부분을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리고 매뉴얼은 법의 정신에 안 맞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검토해서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은 시행 상황을 좀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현재 매뉴얼이 잘못된 게 없습니까, 타임오프 매뉴얼이 잘못된 게 한 글자도 없어요, 한 점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금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령을 해석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같이 또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벌써 전번에 전임 장관 있을 때 다 지적해 줬는데 그때는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더니 이제 청문회 자리에 와 가지고 오히려 더 고칠 것이 없는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답변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범규 위원** 검토해 보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세요,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

○**손범규 위원** 말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유성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이 돌연사 또 자살, 그래서 4명이나 숨졌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유성기업에서요?

○**정동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유성기업에서도 주야간 교대근무 관련해서 주간으로 배치받으면서 임금을 30% 삭감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심적 갈등을 느낀 나머지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한 경우가 3명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사실은 유성기업의 작업 환경과, 작업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도 자동차 만들어 수출하는데 선진국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잠 좀 자고 일하자……

지금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요구는 그것 아닙니까?

밤샘 작업 지긋지긋하다, 이거 도대체……

사실 주간조, 낮에 일하는 사람과 밤샘 근무자의 수명이 12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건강에 수면 부족 그리고 심야 근무가 안 좋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노동권이 인

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후보자의 인식이 맞는다면 잠 좀 자고 일하자 하는, 대한민국이 2만 불이라고 그리고 G20 한 나라라고 자랑하는데, 토요타가 지금 밤샘 근무합니까? 몇 년도에 바뀐지요? 1995년이고 폭스바겐, 독일은 1993년……

아까 글로벌 스탠더드 인용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데는 밤샘 근무 안 하고 주간연속 교대하는데 한국도 이제 그럴 정도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잠 좀 자고 일하자,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따른 임금 감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절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장시간 심야 근로보다는 주간연속 2교대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동영 위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노동부장관의 일이라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 사람을 더 쓰면, 또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내는데, 좋은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또 밤샘 근무 좀 안 하고 정상적으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 다 노동자들 복지후생에 좋은 것이고, 그러면 노동부장관이 그쪽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어디까지나 노사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정동영 위원** 이번의 유성기업 파업은 뒤에 대기업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들, 보도들

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원청회사도 밤샘 작업을 하는데 웬 하청 협력업체가 밤샘 근무를 안 한다는 말이나 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지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대기업이든 협력업체이든 근로자들이 잠 좀 자고 일하자 하는 것은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한국의 노동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데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과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이라는 분이 유성기업 노조가 귀족노조다, 7000만 원 받는 다더라……

근거 없이, 검증도 없이 말이지요, 흑색선전한 거나 마찬가지로요,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과 지금 전혀 동떨어져 있던 말이지요. 이거 노조에 대한 날조, 왜곡이고 또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이거 노동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7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앞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가운데 사측이 파업을 기획했다, 유도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동영 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다음에 귀족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월급을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정확한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기본급은 사실 8년 근무한 노동자들이 120만 원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정상적으로는 40시간 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66시간 일해서 받는 돈이 250만 원이에요, 8년 차가. 그런데 그것을 귀족노조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지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성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이 연행이 됐다가 석방이 되고 했습니다만 몇 사람 지금 아마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공권력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압한 데 대해서 아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선처를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법치와 자치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면책받는 그런 행위였다면 참 좋았겠는데 시설 점거라는 불법성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정동영 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후보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 명명백백하게 아주 공격적인 직장 폐쇄란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공격적 직장 폐쇄가 되려면 노조의 쟁의행위보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는데 노조의 파업이 먼저 있고 회사의 직장 폐쇄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찬반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장 폐쇄 공고가 붙었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찬반투표도 하고 노조의 파업도 있는 연후에 직장 폐쇄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현대차에서 온 담당 임원 인가요, 차에서 발견된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 파업을 유도한 기획문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이니까,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점이 없는가 하는 점에 서 달라 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작년도 3월에 차관 된 이후에 직원 역량강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무능력 직원 퇴출 프로그램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57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센터라든지 지청에 있는 중간관리자 직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아이, 짧게 좀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리더십이라든지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절박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떤 기준 가지고 정했고 어떤 절차로 선정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대상자는 우선 일선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단위로 하고 노동위원회는 전체를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업무수행 역량이 보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각 권역별 의견을 들었고 그것을 전체를 모아서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대상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고 이 평가 결과를 인사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민간의 리더십교육 전문기관에다가 두 달 정도씩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는 일선에서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활동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신영수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모두 대상자가 44명이었고요. 그중에서 13명이 보직 유예대상으로 됐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안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재 일부 2명 정도는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결정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수용해서 어떻게, 자진 퇴직한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자진해서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 공과 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이런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다가 이것을 하고 나서 일선의 직원들이 볼 때 나름대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관리자들도 코칭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졌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그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6급 이하 실무인력들은 좀 거부감을 보이는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5급 이상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신영수 위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있었습니다.

○**신영수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비슷하게 보입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인물들에 대한 징계, 제재성이 좀 강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그 측면을 좀 더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차이는 유사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는 징계성이 강하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징계보다는 다시 교육을 시켜서 현업에 복귀를 시켰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이 대단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원들이 볼 때에도 사람이 상당히 달라져 왔다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업무 역량이 많고 밖으로는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지요.

또 여론조사하니까 떠나고 싶다는 직원들이 몇 %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꽤 나왔습니다.

○**신영수 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숫자가 없는데요.

○**신영수 위원** 다른 부서보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비칠 때에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적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올려 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퇴출하는 직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재교육을 시키지만 마흔몇 명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교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물론 의도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조화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잘 헤아려서 집행해 주실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정서적으로 피해의식 갖지 않고 나름대로 화목한 가운데 공동선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여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사실 그 봉투 사건도 물론 사모님이 받았지만 그것도 철저히 교육을 시켰더라면 미리 알고 받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몸가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도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인간입니다. 저도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상 과업이 인간관계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일선상에 놓고 노력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을 덜 가지도록 최대한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걸 많이 행정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이것이 올해 노동부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 유성기업이 내걸었던 요구가 주간2교대제, 월급제, 이것 일종의 장시간 근로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결됩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유성기업 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 공장들이 24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 파악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이 올해의 주요 사업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유성기업이 문제 제기를 걸고 나왔다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올해 노동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 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작년 12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시간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책을 구체화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 개선이 올해 노동부의 주요 사업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상당히 잘 대응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시간 근로 관행이 중요한 문제니까 진짜 24시간 주야 맞교대라는 것이 얼마나 살인적인 것인가 하는 것도, 아까 ‘조금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다시 보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10시간 노동하고

있는데, 밤 8시에 근무 시작하고 아침 7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식사하고 바로 잠을 못 잔다, 바로 잠을 못 자잖아요? 오자마자, 잠은 못 잤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빈둥빈둥 하다가 그다음에는 잠도 안 오니까 술 마시고 잠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죽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돌아올 시간쯤 돼 갖고는 또 잠은 아직, 충분한 수면시간은 아니지만 일어나서 또 출근할 준비해야지 된다 말입니다, 가족들은 돌아오는 시간에.

이런 식의 노동조건, 이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이것 다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봐야지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아까 정동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다’ 하고 답변했고, ‘취지는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공격적인 직장폐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얘기했어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도 얘기했지요. ‘파업 돌입 전에 했다면 공격적인 직장폐쇄인데 파업 돌입한 후에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노무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러면 노무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노무를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직장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75%가 해서 ‘파업하겠다’, 그러니까 노무 제공 안 하겠다 하는 결의를 하고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잠깐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부분파업이 아니고 간단히 했다 하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부분파업을 했다고 합시다,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장폐쇄는 그날 밤 8시에 있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장기간 파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취지가 다 옳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동안 감옥 안 가고 하려고 적법적인 절차를 열한 차례나 밟아 오면서 했으면, 그래서 2시간 부분파업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파업한 것이니까 직장폐쇄하는 것은 방어적인 직장폐쇄지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께서도 판단하고 계시고 노동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권력의 개입 이후로 굉장히 막 들이닥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노동부냐, 정말 노동자들의 24시간 이 야간 맞교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동정과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노동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직장폐쇄냐, 방어적인 직장폐쇄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사측의 직장폐쇄 시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 5월 18일 날 20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정의행위에 대해서는 아침 8시 30분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오후 1시 30분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몇 시간 하었나요, 길게 하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중에서 어느 것이 되었던 간에 사측의 직장폐쇄 20시 이전에 정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미경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제가 했잖아요. 백보 양보해서, 간담회가 아니고 부분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 부분파업이 지금 2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대를 잡아 갖고 내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10시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며칠을 한 것도 아닌데 겨우, 아직 하루도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직장폐쇄를 내려 버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도 일정하게 맞고 절차도 맞았는데 직장폐쇄를 내린 것은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대체 지금 후보자의 법치 존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뭐 성경으로 따지면 바리새파들의 법치 해석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유성기

업의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00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자동차 완성차 모두가 연관돼 있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서만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아까도 그 얘기하셨는데 참, 기재부장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재부장관, 지경부장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재부장관은 날마다 ‘우리 전체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늘상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아까 모든 게 참 이해가 된다고 얘기한 이 조건이 다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괄적인 거기에 맞춘 법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조정을 이뤄야지 되는 것이지, 벌써 장관 후보자가 이걸 깔고는 ‘이것이 전체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맞교대를 못 하게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걱정을 노동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부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는 정말 이 맞교대를 해서, ‘이 살인적인 야간노동은 우리 노동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도 나누고 하기 위한 것을 할까요?’ 이러면서 대기업하고도 타협하고 기재부한테도 좀 들이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조정을 만드는 것이 노동부장관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법 해석도 아주 완고하게 내려 버리니까 누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자기들이 내세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은 어디에 옛 바퀴 먹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시간 근로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경 위원** 말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 의미에서 2교대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간호사 경우에도 심야근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5일제 수업도 그런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를 줄일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무위원이기도 합니다. 양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서, 특히나 고용노동부가 지향하는 바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가지게 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게 합니다. 즉 구직자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 위원**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런 태도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목살한 채로 기업의 요구, 기재부의 요구 이걸 하는 겁니다. 거기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갖고 가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장시간 근로에 대한 해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서로 다투어서 일정하게 얻어내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노동부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노동적인 장관이 들어서서 는 것 아닌가, 차관까지도 참아 주겠는데 이제는 장관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노동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똑바른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인간 승리로서의 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모습, 또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런 것을 보는 마인드가 어느새부터 기재부 마인드로 바뀌어 버렸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친일자리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됐어요.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참 역시 MB 노동 아바타 장관 후보자시고 또 영포 라인의 장관 후보자시니까 역시 참 답변이 정말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80년대 중반에 저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동결정책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도 정부에서 임금 10%만 올려라,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동 현장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고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25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유성기업의 파업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도 우리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그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탄압을 해야 된다……

뒤집어 보면 이런 논리입니다. 법과 질서, 법과 자치를 외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 이것은 이채필 후보자의 머리에 없습니다. 법과 질서만 있죠,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리고 대재벌가, 기득권의 편에 서서 노동정책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임무로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임금동결정책과 지금 말한 유성기업에 대한 그런 해석, 뭐가 다른니까? 임금동결정책을 노동자들이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징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동결정책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완전하게 실현하겠다, 이게 민주 정부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유성기업에 대한 그런 발상을 보면 후퇴한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임금동결정책과 유성기업에서 아무리 노사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뭐가 다른니까?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영포 라인으로 지목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법치와 자치 두 가지 개념이 공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제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그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과 해 온 일이 그런데 말로는 자치면서 그게 무슨 자치입니까? 자치로 하면 그걸 존중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회사 측에서 강패 용역을 동원해서 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문제인식을 가졌습니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희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든 사든 같이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예를 들면 창원에서 주식회사 센트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사업주를 정말 엄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할 때도 한국항공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그걸 따지니까 그때서야 검찰에 고발했지요. 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그렇게 늦게 조치를 취하고 처벌합니까? 그게 일관 돼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노동부의 한 국장께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노조제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노조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노조법 재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의회주의 국가입니까? 노동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합니까?

이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보도를 보고 확인을……

○**홍영표 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보도를 보고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홍영표 위원** 이것 녹취록 그대로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담당 국장의 얘기가……

○**홍영표 위원** 아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노동부의 일개 국장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거부한다? 이따위 발상을 차관이 하도록 조장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부

분은요, 13년 동안 어렵게 개정된 법이 잘 시행되고 연착돼야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지금 이 재개정하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 이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왜 만듭니까? 소수노조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그걸 노동부에서 고집을 부려 가지고 날치기로 한나당에서 통과시켰어요.

소수노조는 노동3권이 없습니다, 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약 8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재개정안을 냈는데 일개 국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해도 못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오만합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잘못된 겁니다, 잘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러니까 어렵게 이룬 개정 노조법이 잘 시행돼야 된다는 그 의지가……

○**홍영표 위원** 어렵게 개정한 것이 아니고 날치기로 해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 일부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오늘, 타임오프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해 줬더니 엉뚱하게 해석해서, 뭐라고요?

작년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게 속셈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저는요, 제가 상임위 활동이나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직접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 노동3권에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금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다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쟁의마저도. 제가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 물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노동부장관 후보자께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적인 정신과 의미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독일 병정처럼 MB의 노동 탄압 정책의 선봉에 내세우려고 나타나셨어요.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정리합시다.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특히나 지금 아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법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자치다, 법 위에 자치다, 물론…… 그런데 그것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면서 공정하다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시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대 노총이 한결 같이 한목소리로 장관 후보자 내정되고 장관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성에 근거해서 해야지 두 시간 점거 파업한 것을 가지고 바로 직장폐쇄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3권 절차 거쳐서 하는 그 쟁의 과정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국가는…… 글로벌, 글로벌 스탠더드 만날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처벌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업무방해 행위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처벌하는 나라 없습니다. 일본에 그 법 근거는 남아 있지만 시행 안 한 지 오래 됐어요.

특하면 뭐 업무방해, 아니, 노동3권에 파업하는 그 목적이 뭐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고 데미지를 줘 가지고 빨리 교섭에 나오라고 하는 게 그 취지 아니에요, 단체행동권이?

거기에 비하면 직장폐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인력을 넣지 말고 생산에 차질을 주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직장폐쇄 해 버리면 비조합원, 대체 인력 그 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에 펴낸 ILO 세계임금보고서를 보니까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경영 호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얼마나 방문하는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매겨지는 벌칙이 얼마나 과중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전 장관을 비롯한 지금 후보자 모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은 것은 최저임금 사업장이 너무 영세하고 인상률이 너무 높다, 늘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어제 기재부장관 청문회에서 전 박재완 장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감시 감독, 솜방망이 처벌이 최저임금 위반율을 높여온 것이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유념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후보자 명의로 통과됐고 18일 발표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에 관한 제안을 좀 드려도 되겠지요? 뭐 이게 다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념하십시오.

첫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와 같이 최저임금도 적발이 되면 즉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산안법 과태료 건과 같이 규제개혁심의 보고서에 작성하시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기관 자체평가 주요 정책과제에 최저임금 준수 및 감시·단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62개 주요 정책과제를 자체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누락돼 있다고요.

세 번째, 최저임금 특별감독관을 따로 두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일시적 점검이 아닌 정기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처럼 1년에 한두 달 그때만 감독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감시·단속은 효과가 떨어진다.

네 번째는 노동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 경우 기소 여부, 재판 결과를 비롯한 그 결과를 노동부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부가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실 겁니다, 입법으로도. 안 되면 입법으로 만들어야지요.

마지막으로 위의 주문들을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계획 수립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없이 바로 사법 처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최저임금 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국회로 가져오면 어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현재 최저임금은 법에……

○**정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히 9명씩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 등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고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국회가 훨씬 더 잘 수렴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각계의 이해관계 조정도 국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홍희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이 법만 있지 이게 종이 호랑이,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위반 사례가 4만 5000건 그런데 처벌된 것은 100건도 안 된단 말이지요, 영점 한 2%?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 직원이 전부 해서 한 5500

명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이 최저임금 단속하는 게 우선순위가 몇 번째쯤 됩니까, 노동부장관 업무 중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직원 가운데 근로감독을 맡는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최저임금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역량이 좀 덜 집결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근로감독은 1000명이지만 어쨌든 노동부장관 회화에 5500명 있는데 장관의 우선순위가 최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지요. 그런데 특히 대학생,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물어봤더니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관심사가 최저임금,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횟수, 확률 그리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받는 벌칙 수준과의 함수관계다 이게 정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임 장관후보자로서 여기에 대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면 이 부분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질의한 것의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정규직 활용과 관련하여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 간 경쟁 그리고 경영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언급했는데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견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정부도 옛날의 산업자원부, 지금 지식경제부 하는 일이 주로 사용자 쪽 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고? 그러면 노동부장관은 경영 효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것이 맞다, 이걸 좀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노

동 수요라는 측면하고 노동 공급이라는 측면하고, 노동 수요 측면은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정동영 위원 거기까지 듣겠어요. 하여튼 제 얘기를 유념하시면 좋겠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동 공급 부분은 차별……

○정동영 위원 차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차별을 개선하고 개개인 근로자의……

○정동영 위원 차별 개선…… 내가 그것 물을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칙적으로 조건이 같다면, 같은 기여를 했다면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같은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성별·연령·학력 이런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근속연수라든지……

○정동영 위원 성별도 들어가요? 학력도 들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니, 근속연수가 같든지 차이가 난다든지……

○정동영 위원 근속연수가 같으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같이 들어가서 10년 있었다, 같은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다음에 숙련 기술의 수준이 다르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동영 위원 이해할 것도 같고, 뭐 못 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 봤더니 사내하도급 100개 업체가 있는데 라인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실제 받는 돈은 반……

또 대법원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했던 말이야. 이것은 장관, 대통령, 정권이 눈 부릅뜨고 ‘이것은 불공정한 거다, 오죽했으면 대법원도 이것 불법이라고 딱 또 판결도 했지 않느냐?’ 하고 의지 가지면 시정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측은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다 소송내서 다 재판받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보자.’ 뭐 이런 태도인데,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내하도급의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원천적으로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하고 사내하도급의 절제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동영 위원 이게 지금 도급이 아니란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사정의 공감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은 파견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파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파견이 안 되게 됐는데 ‘도급이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하면서, 지시·감독은 다 원청회사가 하는데 형식만 편법으로 도급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이것 법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래서 민법상의 도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편법적인 파견이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편법 파견, 이게 불법이다. 불법 파견이다’ 대법원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 노동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신임 장관이, 통과가 되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이 된다면, 대법원이 판결한 건데 지켜야지요. 이게 법치국가…… 법치 계속 얘기하잖아요? 법치에서 제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게 뭐니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러니까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도 중요하고 또 근로자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과 대법원 판례, 어떤 게 중요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둘 다 중요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거기에 뭔가 다툼이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법원 간 건데 대법원이 '불법이다' 이렇게 했으면 불법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대법원이 '불법이다' 했는데 장관은 '사내하도급과 경중을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니, 법적 쟁송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결론이 나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정동영 위원** 나왔잖아요? 나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국한되는 의미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우리 사회에……

○**정동영 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 소송 낸 사람이 1000명도 넘고 그렇게 되는데, 대법원이 다 오랜 시간 검토해서 내린 판결인데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니요, 그래서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경영계·공익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첫째, 편법적으로 사실상의 불법도급 이것을 없애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쟁송이 붙어서 대법원이 판결했으면 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 이게 장관의 임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됐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들 다 가서 가지고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이걸 물어봅시다.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좀 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대개 보니까 후보자를 세가지로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고

치는 원칙주의자, 그다음에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행정의 전문가, 그다음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몸소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 이렇게 평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평 들어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한테는 조금분에 넘치는 평을 한 것 같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거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타임오프라든지 아니면 복수노조라든지 이걸 차관 시절에 다 관철시킨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기존에 정해진 것을 계속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개선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장관 수행으로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소신이 부족하다라고 좀 일부 위원들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고용 노동 문제의 복잡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하게 진술한 것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소통을 하면서 함께 최대한 최대공약수,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새기고 싶습니다.

○**신영수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신영수 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헌법을 위반한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알기로는 헌법정신에 위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러면 법률을 위반하면서 법을 집행하시거나 정책을 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도 제가 업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영수 위원**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면 큰 권

한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영수 위원** 본인이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직원들과, 또 노·사·공익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죽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쌓은 경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소신 있게 잘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질이 안 된다거나 하는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업무 파악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해 오신 정신과 소신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에 취임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다음에 노와 사의 중용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 힘써 주실 거라 기대하는데 각오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기회를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물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은 또 기업도 같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보호를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도 많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쪽 측면에서, 중용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바탕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영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균형되게 일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잘라서 미안한데요.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순점의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다 그것은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거든요.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을 해소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복지 중에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즉,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생활도 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정책의 영역도 더욱더 넓어지고 고려해야 될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생각들을 읽고 종으로 횡으로 엮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각론적인 분야는 나중에 집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의 대물림,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끊어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 상승도 하고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좀 단절시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몸을 바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노동연구원에 대해서……

원장이 임명됐다가 사퇴했지요? 박기성 교수였나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헌법의 노동3권을 없애야 된다.”, “정규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문제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이때? 이런 말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어쨌든 물러났는데, 아마 이런 원장이었고 했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또 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이러면서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타당한 반발이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원장을 그래도 원장님이니까 하고 그냥 모시고 있어야 됩니까?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발언의……

○**이미경 위원** 발언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봤고 동시에 노조나 직원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 노동부 입장에서는 길들이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경 위원** 연구용역 과제를 안 줘 버린 것이 길들이기 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연구용역을…… 위원님, 그 부분은 연구용역 과제가 제안이 되고 하면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연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해서 거기서 했고 노동부는 직접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던, 77년부터 해 왔던 노동패널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연구원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데도 안 해 주고 1건도 안 썼다, 거의 오랫동안. 올해 들어와서 2건 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채필 차관되시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건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좀 이따가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조 길들이기에 앞장서서 거기의 노조들을 거의 다 많이 약화시켰다 또 길들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데 언론기관·연구기관 길들이기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요? 나한테 비판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연구 안 주고 또 광고 안 주고 이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언론도 길들이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보수적이고 할 수 있는 큰 언론사들한테는…… 보수 입장이지요. 조·중·동 하면 보수 입장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또 경제계를 대변하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10건 이상의 광고를 주면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런 데들은 1건도 안 썼다, 이런 것들은 길들이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언론을 길들이기식으로 결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경 위원** 그러면 왜 안 썼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컨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중·동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를 주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 집약이 되지 않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의견 집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컨대 광고 단가에 대해서 그 금액으로는 실기가 곤란하다라든지 그런 가격 협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가격 때문에 안 맞아서, 다른 데들은 가격이 맞아서 주고 거기에는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1건도 안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공정하게 줬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가격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이미경 위원** 공정하게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누가 봐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노동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신문들이 일정하게, 약간의 비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의 비판이고 비판을 상당히 날카롭게 했던 데들은 안 줬다, 이렇게 보면 ‘공정’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별로 공정하지 않고 세금 가지고 길들이기 하고 입맛대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가격 협상의 결과라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미경 위원** 가격 협상대로만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큰 언론들 거기에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지요. A, B, C 인용해서 가격 협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매체별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가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의 지적 사항 중에서 길들이기식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길들이기식 접근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그냥 좀 더 할까요?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했던 것……

○**위원장 김성순** 아니, 나중에 하시지요. 어차피……

○**홍희덕 위원** 하세요.

○**신영수 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홍희덕 위원** 하시다가 마는 꼴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요, 여기는 끝마쳤어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더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나중에 하시지요.

○**이미경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고 또 좀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녁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채필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식사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타임오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타임오프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정착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GM대우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임원 중의 한 명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임금을 올려 줬고 그 임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더 조합비를 내서 타임오프에 해당하지 못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말로는 협박에 가깝게 들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참 회사로서 난감합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임금을 올렸고 그 임금 올린 걸 가지고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서, 조합비를 더 내서 타임오프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임원들의 급여를 주는데 그것을 회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임오프도 문제지만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노사관계에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근로감독관을 통한 노사관계 개입과 강압적인 방식의 어떤 노사정책,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의 정신은 대규모 노조하고 중소기업 노조에 있어서 중소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노조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노사간에 교섭·협의를 고충 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룬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합비로써 충당하는 원칙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임오프의 취지였습니다.

한국GM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서 전임자 급여를 순수하게 준다는 차원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의견이 들려오기를 사실상 임금 인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조합 전임자 급여를 주기 위한 우회적·편법적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생산직이라는 대상을 조합원 위주로만 되는 것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다른 임단협 교섭이 끝난 뒤에 이것만 특별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경비 원조에 해당되는지, 편법적·우회적인 것인지를 측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타임오프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지금 21세기에 고용노동부가 그런 노사관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해서 할 정도로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것은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세요? 차관으로서 어떤 비중을 두고 했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300만 개 일자리, 1년에 60만 개 만드는 일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타임오프 같은 것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두고 정말 우리 청년실업자들이든 아니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다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약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선공약이 뭐였습니까? 청년일자리 3%로 낮추겠다. 지금 몇 %입니까? 청년실업 8%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노동조합을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 타임오프를 해서 상급단체 이것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이런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 때의 노사정책 이런

발상을 우리 차관님께서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노동행정의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이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욱 역점을 두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임오프의 정신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 되고 노동조합법상 편법적·우회적 경비원조는 법이 금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용노동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채필 후보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채필 후보자님의 어떤 노동에 대한 철학이나 세계관, 또 입장은요. 이 노조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강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 설립허가서를 안 내줘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끄떡하면 세계화, 선진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노동행정 특히 노사정책 분야 이쪽에서는요. 도대체가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한 게 저는 이채필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오프 같은 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사간의 자율에 맡겨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서 혹은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상급단체의 임원들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ILO 제네바회의를 가 보세요. 그것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빗나간, 잘못된 노동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바꾸셔야 저는 어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낮에도 제가 쪽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한국노총 전임자들이 5개월째 이제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한국노총 파견자들이,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지요, 120명?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2월경부터 중단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5개월째.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2, 3, 4……

○차명진 위원 ‘예, 아니오’ 하지 뭘 또 그렇게 세어 봐요, 그걸?
5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못 받고 있잖아요.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아까 뭐 유창하게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뭐 법 정신 얘기하시더니 그것도 ‘예, 아니오’ 대답 못해요, 5개월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제가 듣기로는 2월부터……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2월 달이 그게 이제 1월 달에 준 게 2월치니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장관이 되시거든 경총, 대한상의 등에 권고를 해서 한국노총 상급 파견자들의 밀린 임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이게.
아니면 2번, “아예 그렇게 편법으로 주는 건 실제 원칙에 안 맞으니까 상급단체 노조 파견자의 임금을 근로시간면제 내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을 아예 고치도록 하겠습니까?”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3번, “뭘 소리,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개정을 하겠다는 노조법 개정운동을 아예 포기하고 조용히 있을 때 그때 한번 뭐 내가 경총이나 이런 데에다가 줄 수 있도록 권고해 보겠다” 3번, 셋 중에서 어떤 것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당이라고 무조건 뭐 통과 안 합니다, 저.
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 오겠지, 좀 나중에 ‘왜 그러느냐’고. 아, 나는 노조를 지키는 것, 그

것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확실하게 지키는 거고 노조의 상급단체 노조를 뺀 노조는 그거는 노조도 아닙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그대로 안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법리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명진 위원 아, 1번, 2번, 3번 중에서 고르세요. 4번이 따로 있으면 길게 얘기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노조의 자주성이 지켜져야 되고 1번, 2번, 3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4번은 예컨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서 공익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차명진 위원 그게 3번 아니에요, 3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게 3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4번입니다.

○차명진 위원 3번이지 뭐. 노조법에 대해서 고친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그게 바로 공익사업이라고 해석할 것 아닙니까? 왜 공식적인 자리라고 서로 말이야 예들러서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사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다 얘기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원래 공익사업형태로 출발하는 취지 자체가……

○차명진 위원 아니, 우리 후보자님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수님 하셔도 되겠는데요, 추상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쭙 보면 ‘아, 이분이 3번 얘기하는구나, 지금’…… ‘한국노총, 상급단체에서 노조법에 대해서 불만을 더 이상 토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면 상급단체에 임금을 주겠다, 주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이 뭔데요, 그러면? 4번에서 얘기하는 공익활동이 뭐니까? 한번 들어나 봅시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나 그거 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노동단체나 경영단체의 나름대로 판단의 몫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명진 위원**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법을 직접 만든 당사자가 해석을 하는 것도, 후보자께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건전한 노사관계에 있는 상급노조 활동은 아무리 건전해도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뭐 공익활동에 대해서 믿고 맡겨 보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 아니에요? 뭐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러니까 노동단체와 경영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다면 그 부분은 양 단체의 의견접근 상황에 따라서……

○**차명진 위원** 아, 공익사업이 뭐냐니까요, 내용이. 제가 과문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때 접근하기로 ‘노사문화를 선진화시킨다’라는 그런 의견접근이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노사문화 선진화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게 뭐 뜻입니까? 노사문화 선진화는 이런 뜻이에요? 노총 관계자들이 전부 다 대학원 이상 졸업해 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를……

○**차명진 위원** 아니면 노총 간부들이 전부 다 수입이 1인당 연봉 1억 이상 되도록 아주 훌륭한 경영능력을 키우는 걸 말합니까? 뭐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때 예시하기를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사업, 노사 공동의 생산성,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고성과 작업장 혁신 확산사업, 취약 계층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지금 다 해요, 그것 한국노총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서 장학금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노사관계 협력에 대한 내부강의도 하고 다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데 왜…… 후보자, 그것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런데 노동단

체와 경영단체가 의견접근이 현재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명진 위원** 아니, 그것 뭐 의견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저하고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얘기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보면 웃어요.

지금 후보자님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노조법에 대해서 더 이상 고치겠다고, 고치자고 얘기 안 할 때 그때 그것을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공익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자의적이고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말씀입니다, 남의 밥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줄 것은 주고 그리고 따로, ‘노조법은 이게 정당한 것인데 이것 지키자’ 이렇게 해서 따로 요구하고 협상하고 해야지, 그것을 말아야 치사하게 남의 밥줄 가지고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할 노릇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것 정말 진짜 간곡히 권하는데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못 바꾸면요, 저는 후보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홍희덕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청년 고용대책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년 고용대책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보내 주셨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 취업 눈높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취업 눈높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장래성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보면 학업보다 취업을 우선시하는 일부 청년의 경우 보통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지요. 그렇지만 대학 진학률이 지금 84% 이상인 현실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습니까, 보통?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희들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가서 인턴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일을 해본 많은 청년들은 ‘참 내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86% 정도는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청년이 76%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중소기업의 실정을 정확하게 잘 안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가을 충남 당진의 한 철강회사에서 16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29살 청년이 빠져서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는 2007년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또 천안 삼성 LCD공장의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한 후 1년 만에 회사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26살의 청년노동자, 장례도 한참 있다가 치렀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산재와 관련된 부분으로……

○**홍희덕 위원**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하면 뭐합니까? 임금 수준을 떠나서 고용노동부의 방치 속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용광로에 빠져 죽고, 삼성 눈치 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백혈병으로 죽어도 산재 승인도 받지 못하고, 과로와 유해물질로 인해 발바닥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일해도 아

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청년들이 고통받고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 고용노동부, 무엇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글로벌취업 지원사업이요?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려 놓고 컴퓨터 공부한 청년을 호주 같은 나라의 도축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말이예요, 제1차 청년 내일 만들기 사업에서 7만 1000명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지요? 이 중 3만 7100개가 중소기업 인턴입니다. 이 인턴 중의 80%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턴은 애초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사업 생색내려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수습과 인턴 기간을 포함해서 9개월 동안 저임금에 시달리게 한 것 아니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 녹색일자리 확산 홍보사업은 또 뭐니까? 청년 녹색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메시지를 전파하겠다고 7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해외로 나간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연수생이 호주 IT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IT와 관련 없는 농장에 취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합치 않은 측면이 있고 해서……

○**홍희덕 위원** 전시성이지, 전시성.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2010년도 호주 IT 분야 연수기관에서는 이 문제의 기관을 2011년도 운영기관에서 배제를 했고 또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지침도 개선하고 관리 강화 방안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 단계, 모집 단계, 취업 알선 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청년이 좁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진취적인 자세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로 시각을 열게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취업 지원사업은 재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 또 다시 어떻게 달리 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실시하면 예산 낭비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성순** 흥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인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쌍용의 15번째 희생자로 끝이 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정혜신 박사라고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매주 토요일 날, 아마 한 10여 차례 됩니다. 평택에 가서 쌍용 해고자 가족들 심리치료를 하는데 매번 울음바다가 된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그동안, 정 박사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나 노동자들이 베트남 참전 미국 군인들과 비슷한 정신 상태, 정신적 외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희생자는 언제라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다, 가족이고 해고자들이고.

그리고 또 이게 1명, 2명, 3명, 15명 됐단 말이지요. 실제 죽은 사람은 14명이고 1명은 유산된 아이가 여러 명이예요. 그것을 1명으로 쳐서 15명이예요.

자, 이제 노동부장관후보자로, 쌍용 2009년 8월 6일,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15명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이게 더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과 예산과 관심과, 장관후보자로써 여기에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쌍용차 희망퇴직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현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서 빠른 재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EAP, 심리안정지원사업을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 지금 심리안정프로그램 컨설턴트 2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2009년도에 두 달 그리고 2011년 들어와서 지금 6 달째 두 사람이 배치되어서 아마 돕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 부분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동영 위원** 의사는 정신과 의사거나 이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정혜신 박사는 정신과 의사가 맞고요, 직원들은 이런 심리치료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여기 결합해서 지원해주고 좀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쌍용차 관계자하고 만나서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정 박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정신적 압박 중에 순배·가압류가 아주 결정적이예요.

지금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그게? 메릴린치인가 AIG인가, 뭐 하여튼 구상권 행사가 100억이고 또 정부에서 낸 게 있고 또 경찰에서 낸 게 있고 해서 전세금에다가 압류당한 사람 또 퇴직금 가압류된 사람, 이게 한 이백몇십억 된단 말이에요.

자, 직장에서 잘려 나간 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여기다 대고 집이고 전세금이고 퇴직금이고 압류된 지옥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당하지 우울증 생기지 매일 가정불화 집안 싸움하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이런……

자, 우리가 G20 한 선진국이라고 내놓으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대 노총 그리고 야 4당이 합쳐서 지금 노동 억압적 손배·가압류, 이것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 가압류 제한하는 법 내면 정부에서 적극 찬성 하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이제 민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동영 위원** 법률을 우리가 개정안을 낼 텐데 장관 입장은 어떤 거냐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근로자들의 생계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즉 최저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배·가압류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동영 위원** 과거 정권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무조건 손배·가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이 정부 들어와서 노동을 핍박하고 노동을 탄압했다,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노동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쟁의행위 하다가 잘리고 또 처벌받고 그러면 갔다 와서 손배·가압류에 실질적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고충과 고통을 충분히 좀 파악해서 대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가 며칠 전에 용산역에서 KTX 타고 가는데 광명역에 서더라고요. 한 10분 또 뭘 좀 고친다고 그러더니 천안·아산역에 가더니 또한 10분 서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KTX가 문제가 있다더니 이것 보통일이 아니군요.” 했더니 트위터의 위력이, 조금 이따 코레일 사장께서 금방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불편을 끼쳐서……”

뭐 그렇게 금방 답이 온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올 들어서 스물아홉 번이나 서고,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것 핵심이 뭐냐? 사람을 많이 잘랐어요. ‘공기업·공공기관 선진화다’ 이래 가지고 사람 자르는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코레일만 해도 2009년 일괄 감축한 인원이 5100명인데 이 가운데 60%가 전기·시설·차량 보수인력예요, 보수. 3000명 넘게 차량 보수·전기·시설 전문가들을 잘라 놓으니까 당연히 안전

성…… 우리 국민의 생명을 늘 태우고 다니는 KTX인데, 코레일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이잖아요? 노동부장관후보자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인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자리가 국무회의 아닙니까? 이 정부가 지금 철도공사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대부분 잘라내고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노동이 아닙니다. 친일자리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본인의 철학과 달라요, 이 정부가 가고 있는 게. 충돌하는 지점을 소신껏 발언을 하시겠어요, 그냥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소신껏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도록 제가 역할을 하고요, 아울러……

○**정동영 위원** 그러면 코레일, 보수 분야에서 이렇게 한 3000명씩 잘라낸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의 행위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일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배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법을 위반했을 때,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는 것에 민사·형사·징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행위 그리고 합법적인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영 위원** 노동자들에게 막 100억, 200억씩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식과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죽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니까,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대답하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손배·가압류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 지나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인식을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서는 노동단체를 때려 부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없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마도 법령과 규정에 충실한 법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보다는 그런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 나머지 그렇게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 적 없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없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쟁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질서하게 되고, 잘못하면 사회불안도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게 산업에 지장이 될 수도 있지요. 이게 크게 되면 경제활동에 지장이 되고 하는데, 어떤 합법적인 쟁의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래 노동권이 라고 하는 것이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되지 않으니깐 헌법상으로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는 것이 기본 출발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노동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 틀 안에서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후보자께서 법치하고 자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판단기준이 사실은 애매할 수도 있고, 그 판단기준을,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무슨 쟁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은 경제적인 약자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아까도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따뜻한 정을 가지고 바라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한번 이렇게 가져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따뜻한 공정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내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릴게요.

한국노총이 우리 한나라당하고 정책 연대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최근에 파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정부에 경직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집행부나 선거 이후에 교체되면서 노선상의 차이도 있었지만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집행부나 그전 집행부나 정부가 지향하는 기조는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영수 위원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책을 파기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엄격하고 경직돼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노총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저희 한나라당하고 그동안에 정책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끔 가교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뭔가 대화도 잘 안 되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 일환으로 아까 차명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 노총,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한번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노동계-경영계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로 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노동계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차명진 위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까 아마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열어 가는 노동계-경영계라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주의자로서 생활해 오셨는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노동계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정책 질문을 하겠는데요. 임금피크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대체로 나이와 관련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퇴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해서 다소 임금 수준을 생산성에 맞추더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피크제가 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를 종전에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년보장형보다는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개인의 건강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적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임금피크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하고, 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정년퇴임하고 난 연후에 잔여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도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호간에 대립되는 관계일 수가 있는데 잘 조화시키면 이것도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하여간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 문

제를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하겠다 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었지요? 그래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하면서 노사가 자율 교섭에 따라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개입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고 나서는 것, 그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보니까? 자율 교섭이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다른 민간기관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국민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개선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하되 그런 위법적인 사항 부분들은 시정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지원,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노동부가 그동안에 한 것은 그동안 자율 교섭으로 된 단체협약 중에서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내 가지고 이것은 고쳐라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해당 공공기관에서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직원들이 단협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 경영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요소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말하자면 컨설팅을 받아서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공공기관 선진화다 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주로 공기업을 시장경제화한다, 민영화한다 그래서 또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미경 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관여 안 하는데 그 부분의 공공기관 선진화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고, 또 물론 공기업이 상당히 개혁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차근차근 가야말로 어떤 것은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속에서 그 대안이 반드시 시장경제에 맡겨서 민영화 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그렇게 잡혀져 가게 되니까 노동조합하고의 갈등이 생겨나고 대치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인데 그때에도 단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힘을 팍 빼면서 한편으로는 그 갈등을 만들어 나가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국감할 때도 가장 현안으로 떠올라 와 있는, 많은 문제가 됐던 것들이 공기업 쪽에 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지면서 사실은 노사와의 충분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가고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만들었고, 노동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러한 민영화로 간다든지 노조와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노동부가 미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역할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노사관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단협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그 자체만 의견을 컨설팅 형태로 준 것일 뿐이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기회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민영화를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공공기관 단협을 보고 어떻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민간의 영역과 중복되는, 그러면서 좀 낭비 요소가 많다고 해서 아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결부해서 저희들이 단협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이미경 위원 노동부가 지금 내놓은 단협 분석에서,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다 하고 내놓은 것도 조합원 가입 범위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 운영 지원과 시설편의 제공,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금지,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일시에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그러한 단협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불합리하다, 고쳐라.” 하고는 압박을 가하고, 그럼으로 해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노사 갈등이 올라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또 경쟁을 도입한다고 나오는 이런 방식들이 양쪽에서 압박을 같이 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노조를 일정한 부분 또 파트너로 생각하면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단협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은 또 토론하면서 줄여 나가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노동부의 여기에 대한 개입은 ‘공공부문 선진화다, 선진화의 방향은 시장경제화다, 민영화다’, 이런 방향으로 잡고 노동조합하고 협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 좀 하라는 얘기를 국무회의 가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런 단협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일시에 짝 제기했다고요.

이게 토론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 범위라든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라든지 또 노조 운영 지원, 시설편의 제공, 인사·경영권 제한 금지,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노동조합의 자기 힘에 있어서는 사활적인 문제인데 이걸 일시에 ‘불합리하다’ 하고 노동부가 너무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조를 힘 빼거나 더 말하면 굉장히 죽여 놔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갖고 단협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노사관계의 합리성, 예컨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해당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파트의 경쟁력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 다른……

○이미경 위원 그런데 가야말로 하나의 리포트만 내고 ‘당신들이 참고하십시오’ 한 게 아니지 않

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더라도 노사가 협의해서 고치는 겁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노동부 내에 다른 파트들이 막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노동부 내에 공공노사정책관, 이렇게 해서 담당 국장 1석, 과장 2석,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 부서가 하는 역할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공공기관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나름대로 합리화될 수 있는 노사관계 부분들이 많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과 결부시켜서 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이 일련의 사태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노동조합 힘은 아주 정상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희가 볼 때는 종전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 노사가 담합적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합리적 관계로 되고 단협 부분도 많이 합리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담합하는 것을 깨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죽 제가 불러 준 것들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너무나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힘들 을 다 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노조의 힘들 이 거의 많이 빠지게 만들 었다, 선진화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자체 평가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는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또 노동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은 선진화되지도 못하고 민영화 쪽으로만 나가고, 우리가 이번에 도쿄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민영화로 가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선진화 되었다 하지만 노조의 힘을 완전히 빼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후퇴하고 있고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바라고 있던 공공기구의 개혁적인 방향들, ‘철밥통’이라고 말 해지던 것들,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개혁은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노동부가 별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노동부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이 점에 있어서 차관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많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대단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노사 간의 담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 위주로 한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공공기관 민영화가 반드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영화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해야 되지만 굳이 모든 기관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민영화할 경우와 하지 않고 유지해야 될 경우를 잘 가려서 판단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한마디만 그냥 더 붙이자면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철도공사, 지금 5000명 일괄 감축하고 많은, 오랫동안 노사 갈등의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중요한 부서들의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오히려 잦은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줄여야 될 데를 줄이고 토론을 해 가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하고 거기에 박자 맞춰서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노조 힘 빼기를 하는 방식은 맞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셨다,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것 함께 후보자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알겠고요, 해당 관계부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 보충질의,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질의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영표 위원**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또 다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결국에 많은 근로자들, 조합원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정의행위를 불법 형태 부분이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령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의행위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불법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

○**홍영표 위원** 불법 쟁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이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좋아서 했습니까? 뭐니까?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이념 혹은 민주노총이라는 외부세력 뭐 그런 원인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불법 그런 쟁의를 하게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불법을 원해서,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외부세력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어떻게 정의행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령 틀 안에서 정의행위가 진행되게끔 끝까지 컨트롤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절도 있게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쌍용자동차 이 부도난 회사, 부도가 나서 파산할 수

밖에 없는 회사에서 그런 쟁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외부세력 혹은 이념적 투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결과적으로 쌍용차 사태, 노사 분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장관에 취임하시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념적인 투쟁을 일삼는 민주노총의 배후 조종에 의한 폭력적인 점거, 불법 투쟁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

하여튼 그렇게 정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저는 쌍용차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부장의 책임하에 분규 사태를 끌고 간 것이라고 봅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그러한 문제인식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당시 공장 점거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4, 50대의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4, 50대의 가장들이 무지몽매해서 노동조합의 선동에 의해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태가 그렇게 악화된 데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책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왜 가족들이 와서 그 뜨거운 띄약별 밑의 아스팔트길에서 뒹굽니까?

쌍용자동차 같은 데서 4, 50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해고자 한 명이 부인은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딸을 놔두고 자살을 했

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가 막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기 전날 동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다니는 딸의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자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조조정 당하면 실업수당 얼마 받으니까, 몇 달 받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피보험기간, 나이에 따라서……

○**홍영표 위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8개월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최대한 240일입니다.

○**홍영표 위원** 240일 받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민주노총 쌍용 노조 지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현실인식을 가지고 장관을 하시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죽음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법과 자치, 법과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쌍용자동차의 해법은, 저는 초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동조합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양보를 하고, 회사도 양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해고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도 임금을 낮춘다든가 하는 자구노력을 하고, 회사는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 사람들 같이 가고, 저는 정말 이 구조조정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와 고통을 안다면 저는 정부가 나서서 노사 간에 그러한 대화를 시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공안검찰, 공안경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노동부입니다. 이번의 유성기업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서 경찰청장을 하시거나 기재부장관 하시거나 지경부장관 하시면 되지 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와서 법과 질서를 외칩니까?

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노사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고용부장관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아까 말씀드린 쌍용차 지부 부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면 쌍용차 사태는 결국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회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장 생계가 중요하고 어려워지는 40대, 50대 가장입니다. 해서 더더욱 합법적인 투쟁이어야만 이런 법적인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노사가 합심 협력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급휴직 등에 대해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깝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진중공업 보십시오. 노동조합도 그 회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사 간에 수없이 합의를 해도 결국은 저렇게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

○**위원장 김성순** 정리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후보자께서 아까 말미에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과 관련되어서, 글썽 제가 좀 희망대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고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명진 위원** 우리가 아까 아까운 시간 소비해서 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 하여튼 뭐 그렇지요? 실제 한국노총 상급단체 임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경총에 권한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총에 대해서 일정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고용부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고용부가 그런 얘기를 경총에 해 줘야 또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유인효과가 있어야 경총에서도 임금을 모으기 위해서 각출을 할 거고, 또 고용부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 경총에서도 상대적으로 노조법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또 회사 경영도 할 수 있으니까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또 제 권한입니다. 국민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는데요, 언론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위원조차 후보자께서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경직됐다고 혀를 내두르느냐, 아마 그 해당 여당 위원은 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나라당은 친노동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가 또 친노동자가 아닌, 반노동자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언론에서 오죽하면 여당 위원조차 후보자에 대해서 반노동자적이라고 혀를 내두르느냐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참 저희 여당 위원에 대해서 반노동자적으로 생각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후보자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각에 있

어서 충분히 친노동자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여태까지는 후보자는 차관일 때까지는 사실은 책임이 없고 권한이 없고 집행을 잘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흐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후보자가 좀 더 넓은 시각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쪽, 노동부의 직원으로서, 지금까지는 훌륭했어요, 차관 때까지는. 그런 시각을 계속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여태까지 뒤에서 답변 많이 써 주셨으니까 그 답변 써 주던 실력으로 멋있게 대답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후보자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양대 노총과 노동건강연구소 등과 함께 살인기업 선정식, 이것 해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작년에는 GS건설, 올해는 대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난 사업장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공장에서 재해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기업들에게 여러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특히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재래형 재해가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상용형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서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산재사고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 사고 사망자 수, 사고 재해율을 30%씩 2014년까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의 특징에 맞게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을 순회해서 감시·감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전국의 산재사고가 0건에 수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산재 줄이기 위한 노력 말고도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노동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기업들의 산재 은폐를 다수 적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업들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산업재해요율 중에서 산재사고에 따라서 요율이 증감되는 제도 때문에 그렇지요. 산재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 산재가 0건에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재사고가 0건에 수렴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가공할 만큼 크고 노동자도 많고 작업 내용도 상당한 위험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전국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전국 곳곳에 삼성물산이 담당하는 사업장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아니 지난 10년간 삼성물산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자료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요, 됐어요.

잘 모르시지요?

또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들에게 신청된 산재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중대재해는 보고된 바도 없고 산재는 지난 10년간 그 큰 회사에 2건만 신청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산재 신청 2건?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 역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정도만 돼도 1년에 산재가 여러 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후보자님, 이것이 단순히 조심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본 위원은 은폐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삼성물산에 대해서 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이러한 초대형 규모의 기업들 중에 산재 관련 신청이 0에 수렴하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위원님.

산재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산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실력을 쌓아서 점수를 잘 받으라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치팅(cheating)을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더더욱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제로 산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예컨대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환수자 자료라든지 또는 요양신청서 반려제라든지, 119 구급대 신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부정행위로 은폐되는 일이 최대한 줄어들게끔 유념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안전관리 지도만 나가면 100% 적발을 달성한다며 자랑하곤 하는데 이러한 사업장에 나가는 나갑니까, 삼성물산이나 이런 곳?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나갈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나갔을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나가는데도 1건도 없다? 이것은 뭐……

10년 동안 2건이다, 실적을 보면 참 이것은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런 무용론이 들어요.

이러한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대형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와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위원님, 혹시 의심되는 사업장 자료나 명단이 있으면 주시면 최대한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물쩍하게 그렇게 대형 사업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산재 예방에도 힘써야겠지만 은폐도 특별히 좀 가려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순서가 너무 자주 돌아오기도 하지만 오늘 긴 시간 청문회를 통해서 본 위원과 후보자 간의 문답,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약속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직접 방문은 고려해 보겠지만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문제에 대해서 법률 개정까지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약속을 했습니다.

또 무급휴직자 대표들과의 면담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혜신 박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간 차원의 정신적 외상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노동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고, 잠 좀 자고 하자 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음에

대해서도 동의했고, 이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의 감축, 노동시간의 합리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넷째, 퇴직노동자, 또 해고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손배소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얘기했고, 이런 취지를 반영한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대량 해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철도공사 해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보다 진일보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법치, 법치를 많이 말씀했는데, 법치의 자의적인 적용과 판단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중하고 또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 준수, 또 최저임금의 보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이 같은 노동자를 위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반면에 과업에 대한 대처, 노동권의 제한 등 사용자 측을 위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호하고 과감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또 정부부처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줄 부처가 노동부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서 이것은 반대로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후보자가 강조하는 법치가 노동부장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노동자 지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아마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는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는 노동부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도, 또 차관까지 역임하면서도 쟁점 현안이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의미이거나 또는 민감한 현안이기에 때문에, 또 질의하는 위원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둘 중 어느 것이든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은 없는 고용부 아니냐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위원들께서 아마 장관후보로서의 적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죽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일단 질문보다는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정동영 위원께서 정리를 하셨지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은 오랫동안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죽 지내 오시면서 그것은 뭐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소신도 확실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입장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부라는 기관은 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는 법치를 죽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리고 그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 간의 어떤 자치를 또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 면에서 이 지향점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조직 내에 앞으로 따뜻한 관점을 가지고 관리하시겠다는 거고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용노동부에 근무하시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에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

단이 됩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지금 같은 자세로, 청문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 국민들도 대하고 노동계도 대하고 또 균형감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아까 정동영 위원님 요약 정리해 주신 부분도 있고 우리 신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예컨대 손배소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손배소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철도공사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친구직자·친근로자·친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노동이 아니라 친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을 지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수 위원 왜 내가 질문했는데 정 위원 보고 답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말씀드릴 기회를 놓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지난 한 30년 가까이를 정리를 하시면서 87년은 민주화, 97년 외환 위기, 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정책은 아마 80년대가 됐지요, 노동기본권 보호 그리고 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는 고용안정망 확충 그리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까지 진일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기간을 요약정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선 노동기본권 보호는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외환 위

기 속에서도 고용안정망을 확충했습니다.

(홍영표 간사, 김성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친기업정책을 펴고 노동자들의 권익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87년 노동기본권이 보호되기 시작하고 투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로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던 후보자께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노사관계가 80년대로 후퇴하는 시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많은 정리해고가 있었고 또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은 늘어나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필요한 것이 외환위기 때 만들어 놓았던 고용안정망을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 더 키워 나가는 일들을 했어야지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에 경쟁 위주로 갔던 것을 보다 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는 훨씬 더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안정 확충 이쪽으로 갔어야지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는 오히려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에 맞추어서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노동기본권이 보호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법치라고 나타내고 있는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노동정책이 직장폐쇄입니다. 제가 오늘 몇 번 지적했지만 직장폐쇄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파업하자마자 파업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금지로 보여지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조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해고자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또 투쟁을 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서 가면서 손배소 해서 다시 한번 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손배소와 직장폐쇄 이것이 법치라는 이름 하에서 노동자들을 아주 궁지로 내모는 그러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 후보자께서 법치와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그러한 형식적인 겉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20년 전으로 떠밀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 여기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상태 속에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실망한 것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될 텐데 거기서 기업의 입장을 드는 부서는, 정말 힘 있는 부서들이 막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조차 또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친기업, 친구직자, 친일자리’…… 그냥 해고돼서 나오는 이 노동자들, 정리해고돼서 나오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친노동자’ 이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는 국무회의에 가서 그 막강한 친기업과 친일자리 하는 여러 다양한 부서들 사이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

오히려 그 목소리를 크게 냈으므로 해서 저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하는 점이 저는 후보가 우선 노동부의 역할을 보는 그러한 가치, 지향점 이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차례, 그래서 네 차례 돌아갔는데 꼭……

그러면 마무리 발언 겸 한마디씩……

홍희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홍희덕 위원 정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 이 환노위에 와서 지금 줄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쌍용자동차 사태, 또 그 이듬해 저경주의 발레오전장의 노조 파괴·노조 탄압, 또 구미 KEC, 또 이번에 유성기업으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노조 말살, 공권력과 사용자와 함께 이렇게 노조를 말살시켜 오는 과정들을 죽 보아 왔습니다. 어느 한 곳도 우리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 조정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런 현장마다 달려가서 지역의 지방지청장들의, 관서장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심지어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답니다. 상부에서 노사관계는 노사 스스로 해결하게 그냥 방관만 하라고 해서 개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조정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것 뭐 노동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참여정부 시절에 저도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또 김대중 국민의 정부 그전부터 했었는데, 그때 노사분규가 민주노총 사업장이 됐든 한국노총 사업장이 됐든 벌어졌다 그러면 노동부, 지역의 근로감독과장에서부터—그때는 노동부 사무소 소장이었지요—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조정을 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과국으로 이르지 않고 해결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일정한, 사무총장 아니면 노동부의 차관 뭐 이렇게 해서 분규사업장 대책을 갖고 그렇게 서로 협의 하면서 그런 소통도 해 왔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 사라진 지 지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고용노동부, 대단히 죄송하지만 3년간 이 노동정책이 계속해서 옛날로, 87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과정에 우리 후보자께서 항상 중심에 계셨다……

이번에 후보자로 선정되면서도,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양대 노총이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저도 지금과 같은 우리 후보자의 철학으로는, 대처로는 오늘 청문회를 지켜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이전보다 조금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노사정책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을 좀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사·정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거의 극한까지 몰아넣으면서 그 노동생산성으로 경쟁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모든 부담을 기업이 다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조도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끄떡하면 공권력 투입해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그런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금피크제도 일자리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공권력을 동원한 그런 방식의 노사정책 이것은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그런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는 결코 노동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제 노사정책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 동원해 가지고 타임오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조사하고 다니고, 기업인들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는 고용노동부 설 땅이 없습니다. 정말 고용노동부다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부처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야당에서 마무리 발언 했으니까 여당에서도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필 장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환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승진해서 장관이 되는 처음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인간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고용노동부에서 현업에 임해 오면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여야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물론 따뜻한 식견을 가지고 따뜻한 견해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동자를 도와야 되지만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기업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의 균형된 감각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 정책은 정권마다 다릅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나름대로의 정책에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해 오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선진화를 시켰죠.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전문성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잘 집행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지적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보충해 나가면 잘 업무를 수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마감하는 발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오늘 의 소감, 각오 등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채필**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 자신과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 뜻깊은 충고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동시장은 탄력성을 가져야 되고 근로자 개인의 보호는 탄실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력성과 탄실성을 골고루 가질 때 우리 고용노동 문제가 풀리고 일자리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를 공히 정책 파트너로 삼아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따뜻한 공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 걸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힘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 발언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보좌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27일 14시에 개의회해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유영숙·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 성 천	김 성 순	김 용 구	손 범 규
신 영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원 희 룡
정 동 영	조 해 진	차 명 진	홍 영 표
홍 희 덕			

○청가 위원(1인)

이 정 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출석 공직후보자

이 채 필